



국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다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 우수사례 모음집



국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다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 우수사례 모음집

기획·개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홈페이지 www.unescoapceiu.org

주 소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 화 (02)774-3919

편집디자인 디자인제이디 (02)792-0842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2

- 이 책의 저작권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있습니다.
- 이 책은 한국 교육부가 지원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출판물에 나타난 의견은 개별 저자의 견해이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다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
 우수사례 모음집**



CONTENTS

나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경험담 캄보디아 – Him Mana	05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 가져다 준 두 배의 강점 인도네시아 – Fransiska Ika Prihatiningsih	07
2018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교훈: 행복한 학교 프로그램의 적응 및 개선 인도네시아 – Riski	09
제2의 고향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다 인도네시아 – Hadi Sukoco	12
너와 나 사이의 이해, 소토와 갈비탕 만들기 인도네시아 – Lilis Sulistyawati	14
이해와 존중은 평화의 열쇠입니다 인도네시아 – Rosdiana Rawung Arnold	16
교내 한국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소개하기 인도네시아 – Sry Mulya Kurniati	19
해외에서의 교사 생활이 나에게 가져온 변화 인도네시아 – Hendri Ilyas	22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언박싱: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뀔 때 –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인도네시아 – Herliyana Hasyim	26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변화의 여정 말레이시아 –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29
기억에 남는 여정 말레이시아 – Michelle Lim Chia Wun	32
세계시민교육의 시행: 수타스(SUTAS)의 글로벌화 말레이시아 – Mohamad Farid Mohamad Fauzi	36
한국에서 얻은 가르침 말레이시아 – Mohd. Saifullah Bin Mohd Jendeh	39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배우기 위해 가르치다 –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SABAH의 메시지 말레이시아 – Norsheila Binti Julmohamad	42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한 나의 교육교류 경험 – ‘우리는 그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 Khairunnisaa Binti Mohamad	46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프로그램에서 배운 문화를 극복하는 소통 능력 말레이시아 – Natasya Haswani	49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이후 ‘세계 속의 몽골 어린이’를 만들기까지 몽골 – Oyunmaa Donrov	5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쌓은 교육 경험 몽골 – Munkhtsetseg Byamba	53
교환 교사의 청사진: 문화 및 커뮤니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 통합 및 장점 필리핀 – Shirley E. Alambra	54
세계시민교육 참여의 이정표: 사랑의 연결 고리 필리핀 – George B. Borromeo	57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YAKAP까지 필리핀 – Kristine Joan DA. Barredo	60
세계시민교육을 향한 모험을 계속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 필리핀 – Noel V. Sadinás	63
모든 소음에 스며든 음악(글로벌 교사의 이야기) 필리핀 – Allan Jason P. Sarmiento	65
팬데믹 속에서 사랑을 이어나가기 필리핀 – Elizabeth Catibog	68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쌓은 교육 경험 필리핀 – Regine Lagrimas	71
더불어 살기 위한 이해 필리핀 – Honey Riza V. Yu Vega	74
온라인 프로젝트 – 현실의 조건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도전 태국 – Sasithorn Kiewkor	76
변화: 늑대가 강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환경을 바꾸는 방법 태국 – Kamonrat Chimphali	79
나의 교류 경험, 금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 표현력 향상 태국 – Patcharin Kunna	81
나의 베트남 선생님 되기 한국 – 김선경	84
다름을 넘어 함께하는 즐거움 한국 – 안유정	89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화합의 하모니, 나를 변화시키는 세계시민교육의 힘! 한국 – 김성희	94
죽기 전에 필리핀 민다나오섬 파나보 시티로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 한국 – 이재원	97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하, 교육교류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며, 교류대상국 교육부가 현지 협력주체가 되어 함께 하는 한국-아태지역 국가 양자 간 국제교사교류사업입니다. 2012년도 몽골과 필리핀, 두 나라를 대상으로 시작한 본 국제교사교류사업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아태지역 7개국(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특징은?

본 사업의 특징은 양국 교사가 각 교류국의 현지 학교에 3~5개월간 배치되어 직접 수업을 실시하고 교육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지 배치학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습니다. 7개 교류대상국에 파견되는 한국 교사들과 한국으로 초청되어 온 7개 교류대상국 교사들은 모두 각국에서 선별된 역량 있는 교사들로서, 파견된 학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공교과, 자국어 및 문화간 이해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학교 및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지 학생들 및 동료교사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지 활동과 교류는 파견·초청 교사 자신들은 물론, 배치된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교육활동 경험의 공유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지교사와 협력하여 교류대상국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안을 개발하고, 낯선 환경에서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하는 경험을 통해, 참가교사들은 다문화교육 역량을 갖춘 글로벌 교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또한 교실을 넘어서 현지학교 동료교사 및 관리자들과 교육 경험과 교수법, 교실 및 학교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교류를 함으로써, 배치된 국가, 그리고 소속 본국의 교육현장 활성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중요성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한국과 교류대상국의 교사·학생·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사업 참여국가 내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확대 되고 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한국교사들은 다문화교육 수요에 부응해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교류대상국의 교사들은 국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연수를 받고 국내 협력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비단 사업에 참가하는 파견·초청교사 자신들에게만 국한되는 성과가 아닙니다. 배치된 학교의 동료교사는 파견·초청교사와 교육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며,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춘 파견 및 초청교사의 전공·문화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교육의 수혜자로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이해도 향상은 지역사회 의 다문화 인식 제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국과 교류대상국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Him Mana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참여하게 된 것은 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억들은 특히 국경을 넘어 가르치는 제 교직 경력을 개발하고 더불어 다른 사회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기르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문화와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양한 교실 환경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전략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배치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통해 친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수많은 수업과 제가 참여했던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의 핵심은 '이해'입니다. 제가 배치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과 처음 소통했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서울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에 배치학교의 교감 선생님과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배치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는 데 아주 서투르셨지만 바디랭귀지와 휴대폰 번역 앱을 사용하는 등 저와 소통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셨고, 그 모습에 한국인들의 선함을 느껴 감동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아시아에 속한 국가지만, 조상들이 창제한 자국의 언어를 각각 사용합니다. 영어는 우리 모두에게 '외국어'였기에 처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감 선생님 덕분에 학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묵을 아파트에 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저의 협력교사와 다른 동료 선생님께서는 자정까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저희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곧이어 다음 날 학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점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동료 선생님과 저는 날마다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고 배치학교의 전 학년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그곳에 계시던 모든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고 저희를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매일,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협력교사가 정말 그리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매번 도움을 주셨습니다. 담소를 나누는 시간 대부분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었는데, 항상 서로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화는 유의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를 잘못 이해해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협력교사께서 학교 배구 시합이 끝난 후 다른 선생님들과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녁 메뉴는 오리('덕') 불고기였는데, 그걸 '개(더그)'라고 잘못 들은 것이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메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저희가 얼굴을 찌푸리자 선생님께서는 의아해하셨고, 저희 모두 빠르게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개인적인 경험과 협력교사의 도움을 받아 협력교사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제스처, 한국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된 태도, 소통 스타일, 교실 시스템 외에 업무 현장에서 생소한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해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헌신, 시민 정신, 공손함, 이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배치학교 선생님들은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셨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도움을 주고받는 등 팀워크가 좋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선생님들은 행복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경직되고 딱딱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 생산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다 같이 즐겁게 근무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직업에 만족한다면 그 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식 시간과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는 항상 즐겁게 지냈는데, 이러한 시간도 항상 마지막은 교육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간식을 함께 먹으며 수업이나 학생들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3시간 동안 그저 등산을 하거나 다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활동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함께 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정말 가치있는 경험이었습니다. 1학년생들과 함께 등산하고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소풍 갈 때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아이들의 사랑스러움과 학생들을 보호하는 선생님들의 큰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스포츠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교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은 배치학교에서 제가 맡았던 모든 학급의 학생들과 공유할 다양한 문화 수업을 준비하는 데 날이 갈수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들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저희 수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캄보디아어를 해보려 하고, 저희가 가르쳐준 내용을 배우려고 노력하며, 캄보디아 문화와 국가에 대해 배우려고 하면서 저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과 만났던 첫 날 저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국가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설명했을 때, 대답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에 대해, 그리고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D)의 중요성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저희 수업을 좋아해 주었고, 저희와 수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또한 스스로와 학생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어 세계시민교육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잘 알수록 우리 자신은 더욱 잘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저 또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 프로그램 중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교 밖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저와 제 동료 교사가 기차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정말 무서웠고, 잘못 탄 기차역에서 나갈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려던 목적지가 아닌 것을 알았기에 기차에 올라타지는 않았지만 탑승권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개찰구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때는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 때, 다행스럽게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다가와 바디랭귀지로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고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이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태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저희 배치학교 학생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맡은 학생들은 모두 3학년 이하였기 때문에 연령대가 모두 8~10살이었고,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마음으로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교환 기간이 끝날 무렵, 학생들과 포옹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슬펐지만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생일을 맞은 저를 위해 작은 생일 축하 파티와 댄스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것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교실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좋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사들이 국경에 상관없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감사드립니다.



Fransiska Ika Prihatiningsih

세계시민교육은 어린 친구들이 중요한 능력을 길러 세계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적인 도입에는 학생은 물론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를 포함한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 교육과정에 사회 정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과 같은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및 학습 과정에는 국제 교사교류 프로그램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자들을 다른 나라, 문화, 그리고 사회에 노출시키는 물론 새로운 교육방법론 및 능력 수준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유엔과의 협력으로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합니다. 해외 교사를 한국으로 부르고 한국 교사들 또한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 보내 수업을 체험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금산여자중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정과 영어 수업의 통합 방식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 중 최고의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교육원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국 교육부 및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주관한 인도네시아-한국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금산여중이 보여준 교실활동은 3가지였습니다. 바로 영어, 문화, 그리고 읽기 수업입니다. 여기서는 1학년 대상 영어 수업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영어를 주 언어로 하는 교재와 문화를 통합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수업에 참여하는 교원은 인도네시아 교사 2명과 한국인 교사 1명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업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했습니다. 논의는 학교 영어 수업용 교과서를 활용하고, 영어 수업의 계획은 한국 영어 교육과정에 근거하되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요소를 첨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팀 수업에 의한 교육 및 학습 과정에 대하여 열린 회의는 총 12번이었습니다.

회의의 핵심적인 질문은 ‘세계 시민의 핵심적 능력을 어떻게 수업 내용에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교실 활동으로부터 교사들이 프로젝트에 근거한 학습 및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를 중점적으로 접근하여, 세계시민의 핵심적 능력을 영어 교육과정에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 과정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특히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부분이 강조됐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프로그램은 신선했고, 심도 있었으며, 토론, 읽기, 공연, 놀이 등을 통해 모든 학습 과정에 학생들을 몰입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 부분은 다음과 같은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활동과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영어 수업 활동을 통해 다문화감수성 및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 가치관, 신념을 탐구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를 해나갔습니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첫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한국 문화를 즐기세요’였습니다. 묘사하기, 경험 나누기, 양보하는 대화에 대한 글, 글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퀴즈로 서로의 문화적 요소를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전통 음식, 놀이, 악기, 의상, 스포츠, 관광지, 무용 등 두 국가 문화 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배운 구절을 이용하여 서로 양보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이해심을 발달시키고,



다른 나라(인도네시아) 문화의 특성에 대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이와 동시에 양보하는 표현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해당 표현을 주고받으며 연습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글은 전통 필통(한지), 김치, 비빔밥을 만들고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을 한 학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은 글에 근거하여 읽기 이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인도네시아 문화를 즐기세요'에 대한 글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글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상호작용하며 글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에서 여러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문화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3~5번째 만남에서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관광지, 전통 무용, 의상, 악기, 음식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배운 새로운 정보를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체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5인 1조로 구성하여 온라인 검색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고 이에 대한 파워포인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수업의 프로젝트 학습 방식은 학생들에게 교육목표를 위해 읽고 쓰게 함으로써 문해력을 길러주는 최고의 교실 내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6번째 만남은 이전 수업에서 탐구한 내용을 선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관광지, 전통 무용, 의상, 악기, 음식에 대한 PPT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인도네시아 춤을 직접 춰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루작,' '로텍'과 같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과정을 선보이는 등 수업 주제와 관련된 공연을 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선보일 기회였습니다.

7~10번째 만남은 학생들을 위한 요리 프로젝트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은 반 전체 토론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한국 식당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마다 한국 음식의 조리법을 적게 하였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학생들은 간단하게 인도네시아와 한국 식문화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에게 떡볶이, 잡채, 비빔밥, 불고기, 누룽지 등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함께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요리 프로젝트의 마지막 두 수업에서 학생들은 조리법을 배우고, 요리 실습, 시식 등으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체험하며 인도네시아 음식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한편 관습에 대한 이해는 문법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11~12번째 만남에서 학생들은 법조동사를 배웠습니다. 수업 주제는 학교 규칙 및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습이었습니다. 수업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적 관습과 가치관이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하여 각 학생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 소속감과 가치를 느끼고, 다른 인종 및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 친절함과 존중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규칙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에 근거하여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한국 학교 규칙의 차이점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해당 수업의 결과물은 포스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참가교사들은 두 가지 혜택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세계시민의 덕목을 이해하고 영어 능력도 길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선생님들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수용하며 이해심을 기를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2018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교훈: 행복한 학교 프로그램의 적응 및 개선

인도네시아



Riski

각 국가의 교육과정의 과감한 변화는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교육과정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있어서 필수적 요소입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과에 초점을 두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및 국제수학연구 동향(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Science Study, TIMSS)과 같은 학업 성과 테스트 분야에서 늘 전세계에서 상위 순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움에 대한 의지, 학생의 행복 및 교사의 질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So & Kang, 2014). 이 평가에 따라, 이들은 학생의 능숙함 및 행복에 더욱 초점을 두는, “행복한 교육”이라 불리는 교육 과정으로 바꿨습니다(Kim & Kim, 2020).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PISA 및 TIMSS와 같은 국제 평가시험의 점수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학업 점수가 읽기 능력, 과학 및 수학 분야에서 모든 참가자를 기준으로 항상 하위 10위에 머물렀고, 심지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하향세에 있었다는 점으로 증명됩니다(Tohir, 2019).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행복도는 해당 시험을 치르는 모든 국가 중 제일 높습니다(OECD, 2013). 이는 양 국가 간 발생하는 큰 차이점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비교 연구를 위해 일부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 두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마련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입니다.

2018년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의 뚜렷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옥천초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시행 체계가 중앙화 체계에서 탈중앙화 체계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옥천초등학교의 현지 정책은 의무적인 교육과정의 유지 및 창의적인 경험적 교육과정의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측면은 1~2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오직 다섯 개의 과목만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학습 시간 및 그 외의 시간에서 학생들의 흥미, 재능 및 기술이 발달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라고 부르는 다수의 개별 지도 서비스가 도시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녀의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체계와 함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장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녀가 높은 점수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옥천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제가 있었던 SDN Sidotopo 1/48 Surabaya에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자녀들로 하여금 높은 학업 점수를 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었던 학교의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였으므로, 이러한 요구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추가적인 사교육 시설을 제공하는 능력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들은 멘토링이나 학습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왕따, 괴롭힘과 같은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 조건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일부 요소입니다. 자녀를 향한 가정폭력 또한 저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까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제 경험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 세계시민교육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전세계 국가들의 이익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APCEIU, 2018). 세계시민교육은 학습 과정 또는 학습 외의 분야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실시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두 학생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미소는 무적의 힘이다(Smile is an Unbeatable Power)”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을 저의 개인 YouTube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1fZEJ1bMHk>

프로그램이 끝나고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후, 저는 “행복한 학교(A Happy School)”라는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기존 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학생과 교사의 기술, 관심사, 재능을 발달시키고,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일부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의 주제는 “최고 버전의 자신이 되라(Be the best version of yourself!)”였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복한 학생 일일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했습니다. 과목 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는 없었으며, 오직 관심사 및 재능에 따른 수업만 있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노래 부르기 수업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림 그리기 수업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을 스스로 표현하고, 강제적인 교육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함이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을 초청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놀게 하는 ‘행복한 스승의 날’도 시행해 교사들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느끼는 압박감과 업무에서 요구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활동들을 실시한 결과, 학업, 문학, 미술 및 체육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학생들은 서로 덜 싸우게 되었고, 교육 서비스 및 교사의 성과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행복한 학교” 프로그램은 학습을 진행하기 전의 습관화 절차를 통해 성격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통해 애국심을 기르는 활동을 실시하고, 화요일에는 함께 Duga 기도를 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종교적 캐릭터를 구축하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스토리텔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고, 목요일에는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을 사랑하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며, 금요일에는 합동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활동과 함께, “행복한 학교” 프로그램은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학교 정문에서 친근한 미소를 띄며 학생들을 반기고,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과 부모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모든 학생 동아리 구성원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전시할 수 있는 학생 무대를 매 학기 말에 준비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른 국가에서 온 게스트들을 초대하여 종종 “게스트 교사”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초대한 게스트들 중 일부는 말레이시아, 스페인, 호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옥천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김무영씨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희 학교에 초대하여 Semampir 분구에 있는 모든 교장 선생님들(약 30명의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한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온 교사들과 국제 온라인 공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교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가장 좋았던 교사 경험들을 이들과 공유했습니다. 각 이벤트에는 약 30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활동은 총 3회 실시됐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교장 선생님 및 교사들은 학습 개발과정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고, 세계시민교육을 해당 교실에 통합하고자 하는 영감을 받고, 동기를 얻었습니다.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는 현지 신문 및 텔레비전 등 대중 매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저희는 향후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21세기의 기술들을 배우고 자신들의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복한 자녀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2의 고향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다”

인도네시아

Hadi Sukoco

우선, 저는 2018년도 글로벌 교육을 위한 2018년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초청교사로 참여하여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초청교사로서, 저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교사로서 더욱 겸손해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이 프로그램을 강력히 권장하는 바입니다. 조치원여자중학교에서 90일을 지내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공유하고, 학생 및 교사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최 학교 교사 및 한국 학생들과 커넥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매우 가치있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주최 학교 교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진심을 다해 실시할 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이해와 관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일부 활동을 통해 주최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찾은 주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성 존중

본 주최 학교의 교사들은 외국인인 저를 매우 정중히 대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고 오후에 교실을 떠날 때마다 사용하는 단순한 일일 대화를 배움으로써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했습니다(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 제가 무슬림인 것을 알았을 때, 그분들은 교내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방으로 인도해 주거나, 할랄 음식의 일일 식단표에 대해 물어보는 등,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했고, 제가 금요일마다 Jumat Prayer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는 모스크를 찾기 위해 전세계의 모든 남성 무슬림이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주말 당일 여행에 데려갔을 때, Solat 또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9학년 과정(이슬람이 인도네시아의 다수 종교라는 사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설날에 대해 조치원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침)에서 학생들은 또한 이슬람 세계의 설날(Islamic New Year 1440 H)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종교 휴일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 공감력과 결속력에 대한 공유된 인지

2018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 Palu Donggala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뉴스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의 가족이 무사한 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를 놀랍게 한 사실은, 그곳에 3주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편지와 포스터를 작성했고, 지진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자선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공감능력 및 결속력은 이들의 인식은 물론 세계시민으로서의 감각을 보여 주었습니다.

3. 책임감

교사 및 학생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늘 교사들로부터 받은 업무 또는 숙제를 제시간에 끝마쳤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후 업무의 경우, 학생들은 일정에 따라 교실 및 학교 환경을 청소했습니다.



4. 규율

해당 학교의 한국인 교사들은 항상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했으며, 늦게 도착한 적 없이 벨이 울리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은 물론 저에게도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은 학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규칙에 따라 교복을 입었으며, 체육시간에는 운동복으로 환복했습니다.

5. 비판적 사고

교사들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탐구 학습, 그리고 근거 기반 실무를 통해 학생들을 격려함으로써 일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 중심 접근법을 정의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경우, 학생들은 종종 전문가의 사고를 요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교육과정 기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팀으로 서로 협력하여 일반적으로 정의된, 그리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결과로서 실제 제품에 작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영향을 교실 밖으로 연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워크시트를 확인했을 때, 저는 이것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워크시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일부 과목에서의 교사 및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사 오픈 하우스(Teacher Open House)”라고 부르는 교실 감독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가르침-배움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들은 교사들을 일부 그룹들로 이미 배정했습니다. 활동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교사들은 관찰한 사항들에 대해 각자 피드백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드백은 가르침, 미디어 및 학습 평가에 대한 전략이나 모델의 형식이었습니다.

6. 유대감

저는 스포츠데이 축제(Sport Day Celebration)와 같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의 많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학교의 프로그램은 학생 및 교사들이 실시하도록 권장됩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학생과 교사의 유대감, 그리고 교실 간의 일체성을 조성하여 스포츠 활동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들이 만화 & 과일 캐릭터, 직업, 스포츠 및 영화 캐릭터가 입는 복장 중 가장 선호하는 복장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또한 취미나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거나, 단순히 일부 지역으로 여행하는, 다수의 교사들이 형성한 프로그램인 “조치원여자중학교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2회(매 2주째) 실시되었습니다. 저는 교사 클럽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으며, 도시 내 자연 호수들, 그리고 절에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매우 좋았던 이유는, 교사들 간의 일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취미 또는 선호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자녀 양육 프로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격이나 가정 문제(관계 또는 경제적 문제)에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저는 서울로 이동하여 교사, 학생,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과 함께 관광객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활동은 부모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교사들 간의 관계들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들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비교 문화적인 관점을 통해 저의 전공 과목(과학)에 문화를 통합시키고, 문화적 지식 및 관점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화를 교육 및 교육학에 통합시킴으로써, 문화를 철학과 함께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어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Lilis Sulistyawati

한국에 3개월 거주하는 동안 놀라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수원에 위치한 울천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시간은 매우 아름다운 여정이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배치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의 하루 일과는 매우 흥미롭고, 큰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세계시민교육, 창의적이고 경험적인 활동, 그리고 교실 내 긍정적인 규율은 저로 하여금 이를 적용하고, 제 고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배치학교에 온 첫째 날에 교장 선생님, 모든 학생들, 교사 및 직원들은 학교의 체육관에서 환영식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로 무슨 말을 하는 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굉장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학교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영어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능숙하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학생, 교사 및 학교 직원들을 한국에 있는 제2의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 교사, 직원,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없었니까요. 저의 협력교사들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통역자인 저의 협력교사가 옆에 없으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치학교에서의 첫 주에, 저는 저의 협력교사와 함께 학교의 모든 시설, 그리고 1학년 교실 활동들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어, 음악, 기술, 사회적 요구 및 창의적인 경험 활동 교실들을 관찰했습니다. 또 2학년 영어 교실, 동아시아 역사 교실, 국어 교실, 미술 교실, 창의적인 경험 활동 교실, 그리고 3학년 영어 및 수학 교실들도 구경했습니다. 부모 면담 및 교사 면담에도 참여하고, 학생회에 참가하여 대피훈련, 학교 워크숍, 그리고 학교의 모든 환경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관찰했습니다. 학생, 교사, 그리고 부모들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 이 기회를 사용했으며,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배치학교뿐만 아니라, 수원의 다른 학교, 교사 커뮤니티 및 사무 교육 시설에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실의 분위기는 학생들이 배움을 향상하기 위한 가장 높은 동기 부여를 가지고,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실뿐만 아니라, 특히,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이 도서관에서도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교사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종종 인도네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 음식, 전통 무용, 학교 생활, 인도네시아의 10대들의 활동,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2주차에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저는 교실 내에서 교사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1~2학년 학생들에게 문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매일 학생 및 교사들과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매우 존중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그리 다르지 않은 역사적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장기간 다른 국가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은 2학년들에게 동아시아 역사 과목과 함께 해상 향신료 루트 및 인도네시아 향신료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인도네시아 Maluku에서 나가사키 항을 통해 한국 부산으로 도달하는



향신료의 무역 경로와 서방국가 및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Maluku(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종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향신료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인도네시아의 전통 향신료를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소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토는 한국의 갈비탕과 유사한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닭꼬치와 동일한 Sate도 요리해 주었으며, 제가 요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교실에서 함께 Nasi Goreng이라는 또다른 전통 음식도 요리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저의 전통 의상을 가져와, 학생들로 하여금 착용해보도록 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전통 춤을 가르쳤고,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흥미로워 했고,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서 오후까지 매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으며, 주말에는 가끔 한국의 유명한 장소들을 탐방하거나, 일부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저의 고향의 제가 가르친 교실에서 실시한 일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열정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경험적 활동.
2. 학생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해피 클래스 구축.
3. PDC(교실 내 긍정적인 규율)
4. 국제 시민되기, 글로벌 교육, 서로 사랑하고 도움 주기.
5.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교사가 되기.
6. 학생의 성과, 비폭력 규율, 학생의 모든 성과 반영.

저는 또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흡연이나 마약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 학생회 및 부모들을 동반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애플 데이(apple day)에 저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저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랑을 담아 저를 교사로서 받아들였고, 저 또한 이들을 학생들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저희는 서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마치 고향에 있는 저의 학생들처럼 사랑합니다.



Rosdiana Rawung Arnold

제 이름은 Rosdiana Rawung Arnold이며, 저는 2018년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9월, 저는 배치학교인 인천 대군고등학교의 동료 교사들과 함께 두 국가에 있는 4개 학교를 동반하는 온라인 학생 웨비나를 개최할 계획을 했습니다. 4개 학교는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School, Mutiara Baru High School, 인천 대군고등학교 및 인천 해송여자고등학교였습니다. 이 웨비나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컨퍼런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제가 개최한 세 번째 국제 웨비나입니다. 이 웨비나는 말레이시아의 학교에서 시작하여, 2018년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태국에서 온 학생들과도 진행되었습니다. 웨비나의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학습 체계의 차이점과 공통점, 학습 체계의 혁신, 그리고 문화”입니다. 거의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팬데믹이 발생한 후, 많은 학교들, 특히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는 활동을 하는 학교들은 계획되었던

일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토론 시간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 및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웨비나를 여전히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2018년 한국에서 약 3개월 간 진행한 교사교류활동에 참여한 저의 경험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2018년 9월 초, 한국의 교육, 문화 및 풍습을 배우기 위해 약 1주간 진행한 현지적응연수 이후, 저희는 지정된 배치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현지적응연수에 참여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할 때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에 있지만, 여전히 저희 나라와는 다른 문화, 풍습 및 관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히잡을 쓴 무슬림인 저에 대한 그들의 시선 및 태도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배정된 배치학교는 남학생들만 다니는 카톨릭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어 저의 걱정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저희를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준비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의 문화, 사회, 정치 및 자연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볼 것을 권장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저희 교사들을 환영하기 위해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교사 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저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경험을 얻고자 했으며, 제가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그들도 저에게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배치학교에서 협력교사뿐만 아니라 파트너 교사가 동행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언어와 같은 가장 큰 장벽을 더욱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 도중 학생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한글을 쓰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수업, 프로젝트 수업, 문화 수업, 특별활동 수업, 견학 및 부모와의 수업 등 수업에서 재미있는 활동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책과 같이 제가 참여하고 싶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각 교실의 학생들은 저의 지도를 매우 즐겁게 그리고 잘 따랐습니다.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제 학습으로 비교급 형용사를 배웠으며, 관련 주제는 미술과 문화 측면의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풍습, 자연환경, 요리법, 그리고 관광지에 대해 더욱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발표했습니다. 영어 수업 외에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수업은 특별활동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저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소개하고자 했으며,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함께 음식을 요리하고자 했습니다. 남학생들에게는 요리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이 활동을 매우 즐겼으며, 아주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요리를 즐겁게 시식했습니다.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의 요리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요리법과의 공통점을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교사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높은 의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특히 3학년에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온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저는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학습내용을 재밌게 배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습에 대한 매우 많은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행복감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행복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훈육과 같은 태도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시간, 청결도 및 학습, 사회적 윤리 및 교사에 대한 존중과 같은 훈육은 특히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어야 할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초청교사로서, 저는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왔고, “통합”이라는 단어는 인도네시아의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이 기회는 교사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 흥미롭고 기억에 남았던 또 다른 경험은 한국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한 것뿐만 아니라, 왕권 시기부터 현대시기에 이르는 한국의 국가적 개발에 대한 역사를 목격하는 등 다른 흥미로운 것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한류 열풍입니다. 케이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류 열풍에 휩쓸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인도네시아에 귀국했을 때 저의 학생들이 확실히 기대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케이팝, 그리고 케이팝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종종 케이팝과 관련하여 들었던 대형 기획사들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 주변을 여행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서울시를 혼자 여행한 것은 기존에 가졌던 모든 제한사항을 고려해볼 때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 없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안전과 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밤에 운전하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첫번째 요구사항은 안전과 편안함은 물론 안전한 교통수단 및 이해하기 쉬운 안내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관광객이 필요로 할 때마다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가수들을 홍보하는 데 진심이고 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기획사는 케이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품들을 보고 아이돌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특수 박물관을 건설하여 모든 콘텐츠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그들을 보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지어 일부 팬은 아이돌을 만나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리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웠던 경험은 한복을 입고 관광지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에 있는 매우 큰 궁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궁의 분위기를 즐겼던 이 경험은 관광객과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던 체험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후, 저는 가장 즐거운 학습 경험이 저의 학생들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운 내용이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이해하기 더욱 쉬워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환경, 친구, 동료 등 더 나은 것들을 배우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저를 환영해주어, 저는 새 가족이 생겼고, 앞으로 그들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존의 제한사항과 제약은 장벽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배우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존중은 평화의 열쇠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Tak Kenal maka tak sayang”(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다)이라는 명언이 존재합니다.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고, 서로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점점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교환 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긍정적인 점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저의 학교, 저의 학생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 문화, 습관, 학습 방법 및 학습 도구로요. 제가 언급했던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이와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신감을 주고, 저를 격려해주었습니다. 제가 보낸 그 3개월은 저에게 있어 추억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유지할 두 국가 간의 좋은 관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 느낀 점 그리고 배운 점들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의 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시기에 개최된 가상 컨퍼런스에서 구축된 이 관계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배우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곧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 우정을 통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이 팬데믹이 끝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고,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를 구축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ry Mulya Kurniati

저는 두 가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한국 페스티벌 개최하기, 두 번째는 배치학교 및 다른 교류 학교들과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하기입니다.

저는 2019년도 인도네시아-한국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출신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좋은 성과를 내었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육 제도의 핵심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결속력을 구축할 수 있느냐입니다.

3개월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인들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교사 및 학생들과 저의 관계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신뢰와 동기에 집중함으로써, 저희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 관점 및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좋은 감정 및 좋은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은 좋은 기술, 긴 역사,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0대 대다수는 한국의 문화를 사랑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드라마, 음악 그리고 춤에 매우 익숙합니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이웃 나라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학교의 과외 활동에도 통합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미 구축한 시범 사업은 “한국 축제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소개하기”였습니다. 학습자들은 활동에 참여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21세기가 직면한 상호연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교내 한국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일은 학생들의 학습,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지 및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세계관을 보장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루기도 합니다.

교내 한국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소개하기의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결속력을 구축하고, 인간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을 좋은 기술, 긴 역사, 그리고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으로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고, 뛰어난 인적 자원을 구축한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서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차이점과 다양한 정체성을 인지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다른 이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또한 한국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은 실제 한국 문화, 예술, 공예 그리고 전통 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무용과 한글 쓰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교내 한국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소개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교사 및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전 학력을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한국 페스티벌을 개최함을 통한 정식/비정식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및 과외활동을 모두 다루는 개입활동, 그리고 학습자들의 큰 참여를 격려하는 전통적/비인습적인 방법을 포함합니다. 학습 주제는 학습자의 연령, 그리고 다양한 지리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하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한국 페스티벌의 대상 그룹은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있는 Vocational High School number 6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교내 한국 페스티벌의 구조는 제가 2019년도 인도네시아-한국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출신으로서 제안했습니다. 이 활동은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South Sumatera 지역 교육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교장, 교사, 학생 및 부모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한국 페스티벌은 3일간(2020년 2월 13일~15일)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페스티벌에는 몇 개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부스는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풍경을 전시했습니다. 학생 및 교사들은 여기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미술, 수공예품, 전통 한복을 전시하는 부스와 김치 및 떡볶이와 같은 전통 음식의 요리 수업을 전시하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또, 운동장에서 “부채춤”이라는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튿날에 학생들은 한글 쓰기 대회에 참여하고,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부 부서장을 초대하여 한국 페스티벌을 정식으로 개최하도록 했으며, 그의 연설은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교내 한국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소개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페스티벌을 매우 즐거워했고, 한국의 미술 및 문화를 구경하는 데 매우 큰 호기심을 보이고 열정적이었으며, 한글 쓰기 대회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국가들 사이의 다양성에 대해 배웠고,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의 또다른 목적은 모든 연령대에 속한 학습자들에게 더욱 평화롭고, 포괄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 및 세계적 수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페스티벌을 개최함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교육과정은 연결되고 학습 과정과 통합되었습니다.





저는 또 교내 한국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동안 강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인도네시아-한국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Vocational High School Number 6 팔렘방에서 온 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육과정 변화의 주도자이자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커뮤니티에 널리 퍼지게 하는 기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 페스티벌은 교장, 교사, 학생 및 부모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고, 지역 교육부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한국 페스티벌 부스의 한국 미술, 수공예품 및 한복의 품질은 매우 좋아서, 학생들은 실제 한국 미술 및 문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페스티벌에 참석했기 때문에 학교는 굉장히 붐볐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페스티벌의 모든 부스에 참석하는 데 매우 열정적이었고, 한글 쓰기 대회와 사진 촬영 대회에 한복을 입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거 앞으로 진행할 후속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및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단되면, 교류 학교인 서울공업고등학교의 일원이 2022년 1월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State Vocational High School Number 6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사, 교장 및 교감을 포함한 10명의 인원이 5일간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동안, 각 학교의 학생들은 문화 공연을 실시하고, 기술 및 직업 교육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 초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기술 분야의 재능을 선보이고,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요리법 및 뷰티 수업을 포함한 관광사업 분야의 재능을 선보일 것입니다. 교류 학교들과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교환 수업은 2021년 8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ICT에 초점을 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은 교장, 교사, 부모를 포함한 각 교류 학교의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현지 정부 및 교육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네스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주최한 2019년도 인도네시아-한국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출신입니다. 한국 학생 및 교사들과 만난 것은 저에게 있어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문화를 교류하고, 교육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체험을 통해,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이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 이미 계획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중 하나는 저의 배치학교인 한국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rendang, nasi goreng, bakwan, gado-gado, pempek 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을 전시하는 부스를 열었습니다. 또한 Kebaya, batik, songket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도 전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Batik 디자인 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페스티벌은 “Tor Tor Dance”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무용 공연과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페스티벌 당일의 서울공업고등학교는 매우 붐볐고,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문화를 보게 되어 매우 신나고,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페스티벌 사진을 공유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Hendri Ilyas

해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해외 교육 경험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학생, 교사 및 학교 관계자와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탁월한 기회였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 관습, 주민의 긍정적 태도를 배우고 새로운 도시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한 나라나 세계 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은 놀랍고도 큰 교훈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에 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호적이면서도 원대한 목표를 마음에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목표는 한국 학생, 교사, 그리고 국민에게 이웃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 이웃국가의 고유 문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한국인과 어찌 보면 매우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배치학교 선생님들과 협력해 이러한 점을 수업에서 소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며 말 그대로 13~16세 학생 수백 명을 가르쳤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진 못했지만 저는 빠르게 수업 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배워 학생 및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 부흥중학교에서는 제 교사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교사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 협력교사는 역사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매우 겸손하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협력교사와 함께 하는 3개월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직업을 대하는 전문성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협력교사는 수업을 굉장히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일찍 오셔서 학생들을 위해 할 일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 동안 제가 배운 긍정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부천 부흥중학교를 찾은 첫 날 저는 교장 선생님 및 다른 모든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영에 너무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가 학교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중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학교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및 교사분들과의 면담 이후, 저의 협력교사는 학교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교실, 실험실, 조리실, 도서관 및 선생님들 및 학생들을 위한 보조 시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학교가 수업 및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무척이나 잘 갖춘 점에 놀랐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협력교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영어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협조적이었습니다. 종종 의사소통이 힘들 때는 손동작이나 글로 써서 설명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영어 선생님을 대동해서 토의를 진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주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나 교재가 한국 법에 따른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교재의 경우 일부분이 한국 교육법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협력교사는 또한 학생들이 듣기에는 부적절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수업 중 쓰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교박 일주일 동안 저는 몇몇 수업을 참관하거나 지켜볼 수만 있었습니다. 수업에 가기 전 협력교사가 항상 해당 선생님에게 제가 수업을 참관할 것이라고 알려드렸고, 수업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참관 결과 바로 눈에 띈 점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훈련된 태도였습니다. 학생이나 선생님이 학교에 늦는 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보통 수업 시작 전 30분 이전에 모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옷을 갈아입고 수업이 끝난 후 다시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음 수업 때 체육 시간 때와 같은 옷을 입은 학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교육 및 학습 과정도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교사가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업 조건은 인도네시아와 같았습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대부분 이야기하고 설명할 동안 학생들은 일단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수학, 국사, 과학과 같은 특정 수업에만 해당했고 그런 수업에서도 선생님들이 종종 활동이나 토론에 학생들을 참여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아직도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지도가 필요한 단계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학교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 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핵심 과목으로 배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악, 미술, 체육, 국사, 도덕, 가정, 제2외국어, 기술, 한자를 추가적으로 배웠습니다. 관찰 결과 정부는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수준의 과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태도 및 소프트 스킬(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비롯한 종합적 능력)까지 길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참관하며 느낀 것은 한국이 선진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윤리와 악기를 가르치고 가정 교육 및 기술과 같은 소프트 스킬도 교육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세대가 계속 전통적인 가치 및 음식 문화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기술적인 경쟁력도 갖추길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정 과목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협력교사가 배정해주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반의 수업에 참여했지만 가르치는 주제는 같았습니다. 3주 만에 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승인받은 교재를 파워포인트, 영상, 카훗트라는 퀴즈 앱과 연동한 학습지, 그리고 복습을 위한 플립그리드를 활용하여 제시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군도 지도를 보여주자 학생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크겠다고 생각 못한 것입니다. 아는 도시도 발리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우와,' '엄청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인도네시아의 종교, 주의 수, 기후, 교육 제도 등 새로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수업 중 토론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했습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떠올렸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제 설명을 보충했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으며,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질문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업 과목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영어를 잘 하셔서 제가 말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업 도중 같이 게임을 했을 때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학생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주제를 잘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앱을 사용하거나 직접 답을 하며 게임을 하는 데 학생들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내용 중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묻자 학생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한복 밖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영상으로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지역에 걸친 34가지의 전통 의상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저 옷을 모두 다 입나요?’ ‘옷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등 자신이 궁금하거나 흥미로웠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 옷 몇 가지를 들고

오고 다른 지방 세 곳에서 각각 전통 의상 하나씩을 빌려 온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수업 끝에 전통 의상을 학생들에게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의상을 입고 모델처럼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으며, 선생님과 학생들이 확실하게 인도네시아에 대한 통찰을 얻고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기회였습니다.

한편 세계시민으로서 제 상호 이해심과 존중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저는 한국의 문화, 언어, 음악 등에서 새로운 가치를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한국 학교에 있을 동안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한국 식당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식당에서 한국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셨으며, 젓가락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릇에서 음식을 어떻게 덜어내는지, 밥은 어떻게 같이 먹고 식사 예절은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또한 밥을 먹는 동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가기 전 협력교사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먹는 것에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꼭 확인하셨습니다. 정말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악기인 장구를 배우면서도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 수업에 몇 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구는 배울수록 흥미로운 악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마침내 장구의 리듬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음악 수업에서 제 지역에서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를 소개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불었을 때는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영상 자료를 통해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하며 영상을 감상했고, 한국에도 똑같은 형태의 관악기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도 수업에서 다뤘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비슷한 음식을 짝짓는 식으로 수업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송편과 비슷한 온데온데, 봉어빵과 비슷한 쿠에이칸(어묵), 그리고 야채전과 바관 사유르(칠리 소스가 들어간 야채 팬케이크) 등으로 말입니다. 협력교사는 당신의 가정 교육 수업에서 야채 팬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갑고 따뜻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비로소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조리실이 북적거리고 더러워질 것임을 알았지만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조리 방법을 가르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매우 열정적이었고 제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실습을 끝내고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의 레시피를 재현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한편 제 교류 생활은 가르침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과 면담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국 교육 체계가 매우 치열하며 경쟁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수많은 과외 활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 후 학원을 여기저기 연이어 다니고,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가끔은 개인 과외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아이들의 성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걱정이 제일 커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추가적인 수업을 위해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학원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명문 대학교의 이름을 적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부모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밤에 본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하교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아이들과 부모 모두 큰 희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생과 분투라는 새로운 가치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한곳에서만 살 수 없도록 계획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서의 교육 경험은 돌아다니고 여행할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문화와 가치를 배울 기회였습니다. 3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일하며 몇 주 동안 머무르는 것보다 다른 문화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관광객이었다면 절대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장소도 많이 가 봤습니다.

현지인과 친해지며 그들 만이 아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외국에서의 교사 생활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폭 빠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연박상: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뀔 때 -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인도네시아

Herliyana Hasyim

이 속담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가입하는 전반적인 경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모든 일들 이외에,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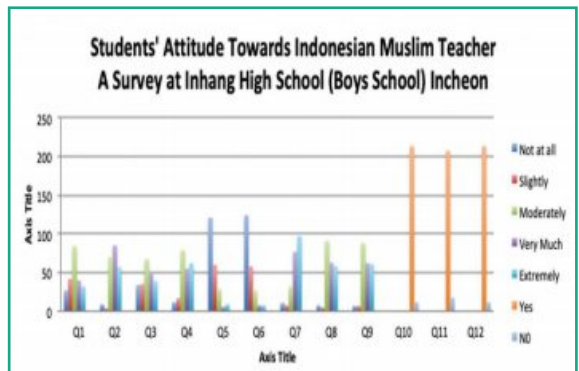
제 이름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자 목록에 발견한 그 순간은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면접관 중 한 명이 “히잡을 쓴 여성 무슬림 교사로서, 당신은 이슬람 종교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저는 많은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문제는 저의 “두려움” 목록의 상단에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교사로서의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할까? 그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진행하는 학습과정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배치학교의 교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내가 얼마나 교내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인향고등학교에서의 첫 날까지 나를 걱정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간된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 뉴스기사는 저에게 필요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모든 사업참가자에게 프로젝트가 할당 되었을 때,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적 문제에 대한 미니 리서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인향고등학교에서의 첫째날에 한 학생이 저에게 “Assalamulaiikum”(무슬림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를 맞이해 줄거라 예상하지 못해서 매우 놀랐고,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한 학생이 갑자기 “Allahu Akbar”(이슬람 교도가 신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를 외쳤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얼떨떨했습니다. 그 순간을 이슬람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세계시민의 책임 중 하나는 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세계적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슬람에 “테러리스트”라는 딱지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의 믿음에 대해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한국 학생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좋은 관점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또, 한국 학생들이 무슬림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인향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미니 리서치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고, 이와 같은 문제에 더욱 명확한 관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특히, 교육자 또는 교사)이 사용하기에 좋은 출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도표가 결과를 잘 묘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무슬림 교사에 대해 인향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시한 매우 긍정적인 답변들을 보여주며, 이들 중 거의 95%는 교사의 종교(이슬람/무슬림)가 자신들의 가르침 및 학습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가입한 후 제가 경험한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변한’ 체험은 한국 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 문화를 공유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밀레니엄 세대의 10대들(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에게 있어서, 문화와 전통은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부모, 조부 및 그 이전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문화를 배우는데 흥미를 느끼거나 즐거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한 주제를 좋아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전통 춤을 소개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인항고등학교는 남고이므로, 이들 모두는 남학생이었음)은 춤을 취보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며 불안해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수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수공예품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Table 1. Questionnaire

No	질문 (Questions)	전혀 그렇지 않음 (Not at all)	조금 그렇지 않음 (Slightly)	조금 그렇다 (Moderately)	그렇다 (Very much)	매우 그렇다 (Extremely)
1.	I have known about Indonesia before the Indonesian teachers come to my school.					
2.	I am interested to know more about Indonesian.					
3.	I have already known about Indonesian Muslim before the Indonesian Muslim teachers come to my school.					
4.	I do not agree that Muslim is always related to terrorism.					
5.	I am not comfortable about having a Muslim teacher in my class.					
6.	I can not enjoy the learning process in my class because of the teacher is a Muslim.					
7.	I do not have any problems by having a Muslim teacher in my class.					
8.	I like the teaching method that I used by my Muslim teacher.					
9.	I like the characters of my Muslim teacher.					
10.	After being taught by a Muslim teacher, I became more aware that teachers' religion is not a barrier to learning.			☐예(Yes) / ☐아니(No)		
11.	After having an Indonesian Muslim teacher, I became aware that it is important to be a global citizen.			☐예(Yes) / ☐아니(No)		
12.	Through this class, I became more aware that the world is closely interconnected. (이 수업을 통해 세상이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Yes) / ☐아니(No)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내포된 미션 중 하나는 모든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자는 물론 배치학교의 학생들의 문화적 인지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매우 다양한 의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학생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저희는 그 후에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야 하거나 입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특정 시기에 입어야 하는 한복의 종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석에도 한복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을 알게 된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때가 자신들의 전통 및 문화를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최대한 빨리 보존하지 않을 경우, 향후 10~15년 이내에 그 전통과 문화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일 거니까요.

문화적 정체성은 전통, 유산, 언어, 미학, 규범 및 풍속과 같은 집단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구축되고 유지됩니다.

다른 문화와 더욱 많이 접촉하는 글로벌 세계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의사소통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협상되고, 유지되고,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Chen, 2014).

한국의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사용한 방법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궁들은 양호하고, 거의 새 것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인지를 높이는 책임은 배치학교의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을 끝나치고 저의 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제가 얻은 경험 및 배운 가치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케이팝이나 한국 문화가 전세계의 젊은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의 일부가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하고 보존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문화들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또한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일 만큼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 보존에 대한 문제가 인도네시아의 현지 정부의 필수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문화 학습은 인도네시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었고, 모든 학교는 현지 문화에 대한 수업의 내용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제가 얻은 중요한 부분은 규율, 성실, 그리고 전문성과 같이 인항고등학교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그것들 전부를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들을 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체험을 저의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공유하는 일은 언제나 저를 즐겁게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좋은 학업 체계 및 문화들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순간입니다. 제가 깨달은 바를 인항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학업 문화는, 한국 학생들이 그들의 이상과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구체적인 미래의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비해, 한국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자신들의 미래의 목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교사, 교장, 교육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술, 관심분야 및 미래의 목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보존하고, 추구하고, 높이는 일과, 학업 문화와 관련하여, 사업참가자인 교사들, 배치학교 및 교사의 기존 학교에 끼치는 많은 직간접적 영향 요소를 보여주었습니다.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3층 원룸에서 변화한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자니 한국에서 가르치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3달 동안 살았던 상도동에서 매일같이 하던 일과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던 말레이시아 교육부의 광고를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아마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다른 선생님들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사바의 직업 학교에서 12년간 영어를 가르쳤고, 평화로우면서도 느긋한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온한 일상에서 결코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사 생활이 어느정도 지나자 어딘가 정체된 것처럼 느꼈고 제 삶 속에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진전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던 저를 운명이 이끌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17년에 이 프로그램에 자원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나'를 발견하여 삶을 변화시킨 엄청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업 경험, 국제 컨퍼런스, 네트워킹 기회, 문화 교류 등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제공했기에, 저에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서 서울로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픈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3개월은 제가 더욱 좋은 교육자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지식에 대한 열정과 목마름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3개월 이상 진행되었으면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배치학교는 이름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로,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협력교사로 최선을 다 해주셨던 임현빈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의 참 모습과 품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직업학교 교사인 제가 서울공고에 배정받은 점은 세계의 기술직업교육훈련(Technical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관련 내용을 한층 더 가까이 파악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TVET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더욱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고자 TVET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느끼고 싶다면 그곳에서 살아보아야 합니다. 서울공고에서 제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무슬림으로서 기도를 올리고 할랄 음식을 먹는 등 종교 의식을 치르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의 굉장히 사려 깊은 이해 덕분에 저는 오후에 상담실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식사의 경우에도, 식당에서 무슬림을 위한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식사가 괜찮은지 항상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울공업고등학교라는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에 다소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 교사들과 학생들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영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두 번째는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여 간단한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느 한국인 선생님께 제가 입고 있던 코트를 한번 휘날려 보여주고 그의 복장을 가리킨 후, 동시에 엄지를 올리며 코트가 멋지다고 말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은 당연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이도 저도 안 될 때 쓰라고 알려주신 네이버 번역 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한국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단어 하나 하나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며 저와 대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어를 사용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말하자면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랄 정도이지만 정말 특별한 추억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공고에서 ‘말레이시아 데이’를 열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선보이는 일반적인 준비 외에도, 찹쌀과 땅콩 소스를 넣은 ‘르망’이라는 말레이시아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저는 전날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는 공용 주방이 1개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입주자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정이 넘은 후에야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만든 요리를 모두가 좋아해 주었고 르망 그릇은 가장 빨리 비워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 뿌듯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한국인들의 훌륭한 점을 많이 아는 여행자들에게서 듣고서는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점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에도 옛 문화를 보존하며 서울에서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한국인 친구들이 많은 지금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김치와 반찬을 먹는 중요성부터 한복 춤을 배우는 것, 가족과 추석을 지내는 것, 경계가 삼엄한 비무장지대를 탐방하는 것, 함박눈이 내리는 겨울을 지내보는 것까지 저는 모든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과 썸(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SSAEM) 컨퍼런스는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이벤트입니다. 이처럼 쉽고 재미있고, 열정으로 가득한 전 세계 교육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험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부탄, 핀란드, 아프리카에서 온 교육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잘 준비한 이벤트가 진행될수록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저는 재충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부터 해오던 일들에도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교사 5명과 학생 13명으로 구성된 18명의 한국 대표단을 우리 학교로 초대하여 ‘한국-말레이시아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바 지역에 오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든 이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했던 활동으로는 드론 조립 및 운전 소개, 서울로봇고등학교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문화 교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긴밀한 협력과 미래 인적 네트워크의 상징으로 드론 15대를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덕분에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 로봇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로봇 세트를 구매하고는 2018년 7월에 열린 세계로봇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시 3등을 하면서 2018년 10월에 한국 킷엑스 전시관에서 열린 국제로봇 콘테스트에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여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로봇 콘테스트에서도 전 세계 14개 팀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후 수많은 학생이 로봇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로봇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을 모아 드론과 로봇을 가지고 놀고, 탐색하고, 교육하는 특별활동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말에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발표한 2017년 말레이시아 우수 교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국을 찾아 2018년 11월에 열린 SSAEM 컨퍼런스 참여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영감을 줄 수 있어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수 교사 선정은 제가 말레이시아 교육부 차관 앞에서 제 경험을 발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값진 수상이었습니다.

저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국제 교환 프로그램 세 개를 조직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서울공업고등학교와의 ALCoB 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교육 시스템과 훨씬 더 밀도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학교는 MOU를 체결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관계를 기념했습니다. 교사 4명과 학생 10명으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 학생단은 재할용품으로 드론 프레임을 조립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유명한 한국 음식인 비빔밥을 요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사바의 풍부한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전국 방송과 지역 신문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9월에 열린 '가자! 한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 대표단 19명을 이끌고 8일간 서울 곳곳에 있는 기술 학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국제 교환 프로그램은 2019년에 경상북도 포항 대동중학교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단 20명이 당일치기로 저희를 방문하여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문화와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 교육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한층 더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한창 유행이었던 당시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SSAEM 컨퍼런스를 진행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가 물리적인 컨퍼런스를 온라인 공간으로 가져간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황에 개의치 않고 이 새로운 규범을 낙관적으로 보았고,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전세계 교사들이 보여주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를 통해 컨퍼런스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인천공항공고등학교와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말레이시아 고등학교 팀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매우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고,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은 가상으로나마 국경을 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과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활동은 쉽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ICT 도구가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서로 작은 선물이나 수업에 쓰였던 한국 전통 물품인 도장 같은 것을 주고 받으며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각자 국가에서 먹는 라면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만 가능합니다.

여정 중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언제까지나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경험에서 얻은 만족감에 지나치게 취할 것 같기도 할 만큼 벅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저를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며, 지금까지 제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Michelle Lim Chia Wun

외국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여곡절이 많고, 종잡을 수 없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느끼는 재미에 비하면 별 것 아닙니다! 사실, 얻게 되는 보상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월등히 뛰어 넘어 버립니다. 2018년에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은 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함에 있어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평생 동안 남게 될 경험이었고, 교육에 대해 제가 가졌던 관점을 철저히 바꿔주었습니다.

한국의 배치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신나 있었던 만큼, 저는 친숙하지 않은 문화와 집으로부터 약 4,354km나 떨어져 있는 외국 학교에서 근무해야 해서, 그리고 그 때는 한국어를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2018년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경기도의 오전초등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학교 사람들과 사귀고 싶었지만, 한국에 도착했던 시점에 제가 유일하게 이해했던 문장은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공유할 수 없었고, 그들도 그들의 생각을 저에게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은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더 배우고자 하는 저의 간절함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는 것은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자발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학교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동안 저의 협력교사와 영어 교사로부터 기초적인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한국어 글자(한글), 한글의 소리, 기본적인 인사말, 그리고 말투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오전초등학교에서 만난 저의 새로운 가족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시절에 제2 외국어를 배웠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2 외국어 수업능력을 가진 언어 교사이지만, 제가 종종 언어 학습을 교육자의 관점에서 보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는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부터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치 있게 생각했고, 한국인 교사 및 학생들이 저와 같은 외국인 교사와 의사 소통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서로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상호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배우고 의사소통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 교사 및 학생들에게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영어로 말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벽에 대한 강박감은 이들의 영어 의사소통을 저해시켰습니다. 한국 배치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또 다른 언어인 Bahasa Malaysia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이 학습을 실시한 날을 마무리할 때, 저는 Bahasa Malaysia 언어로



적힌 많은 기프트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사소통이 개선되자, 저희는 문화, 교육,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 교사인 저와 한국인 교사 및 학생들 사이에 상호 지지적이고, 존중하고, 즐겁고,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조화로운 다문화 국가에 사는 말레이시아인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일은 언제나 저의 성장 과정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완전히 동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구성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각 민족 집단은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유하며, 이러한 다양성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저희는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들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함께 세계시민의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특히 필수적입니다.

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저는 신뢰, 존중, 문화 간 이해를 위한 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 하는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정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교육 체계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고, 교육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인 교사들로부터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였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학생이 급증하고, 국제 결혼 수를 증가시키게 한 다문화 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한국인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포괄하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 과정(학교)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학교에 방문했고, 한국의 교사와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공유하고, 다문화 국가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기 위한 팁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전초등학교에서 보낸 3개월 동안, 저는 전 학년에게 다양한 문화 수업을 교대로 가르쳤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고, 교사들 또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은 해당 학교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문화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저는 말레이시아인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인종, 언어, 축제 기간, 전통 의상, 음식, 전통 놀이, 미술 및 공예품을 공유하면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서 서로 살고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수업 전 30분 휴식시간이었던 '즐거운 시간'에서 문화적 구슬공예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학생들과 방과후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한 때, 학생들은 매 휴식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직후, 저와 제 파트너의 방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졌고, 우리 또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놀이를 가르쳤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놀이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제 귀에는 음악처럼 들렸고, 학습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일 외에, 저는 다른 말레이시아 초청교사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데이, 그리고 다문화 미술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를 공유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인종이자 민족에 해당하는 저와 제 말레이시아인 친구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뤄내기 위해 팀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고, 이러한 다양성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기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젊은 세대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홍보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제가 해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제 모국과 다른 문화 속에서의 삶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비슷한 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또는 저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들에 대해 더욱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락한 환경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귀국한 후, 저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제가 얻은 경험과, 배운 지식들을 공유할 생각에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국제, 국가, 주(州), 지역 단위 또는 지구(地區) 단위로 적용되는 우수 사례 공유 프로그램에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 교육 체계, 학교 환경, 라이프스타일,



세계시민교육 등 제가 한국에서 3개월간 얻었던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더욱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 나가 다양한 유형의 지역 단위, 국제 단위 혁신 대회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를 다루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말레이시아 교육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캠퍼스, Young Southeast Asia Leaders Initiatives (YSEALI), 미대사관이 주관한 교육 워크숍에 참여하고, 2020년에 National Geographic Certified Educators 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열심히 삶을 사는 동안, 하루 하루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저의 한국인 '가족'은 항상 저의 마음 속에 제 일부분이 되어 머무를 겁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시행: 수타스(SUTAS)의 글로벌화

말레이시아

Mohamad Farid Mohamad Fauzi

유엔의 제8대 반기문 사무총장이 했던 훌륭한 연설을 말씀드리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시민의식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문해력이나 수학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공정하고, 평화롭고, 관대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전적으로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인 우리는 교육 분야를 이끄는 데 있어 기동과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시민 여러분! 제 이름은 Farid Mohamad Fauzi이며, 부르기 너무 길다고 느껴지시면, 그냥 Farid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외곽에 있는 Selangor의 Sungai Kertas National Secondary School에서 지리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말레이시아인 교사들은 2018년과 2021년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매우 값지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시간을 제공해 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글의 제목은 ‘세계시민교육의 시행: 수타스(SUTAS)의 글로벌화’입니다. 수타스(SUTAS)라 불리는 저의 학교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5년이상 운영되어 온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 대부분은 좋지 못한 생활 환경과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비교적 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학교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UTAS의 글로벌화를 향한 여정,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 특히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교육개발계획에 명시된 교육에 대한 6가지 열망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SUTAS의 주요 목표이며, 이와 같은 열망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및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연계 및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저는 학생들의 높아지는 자신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은 이곳에서 사는 동안 자신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생들은 ‘커뮤니티’, 즉 지역 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전세계이고, 전세계는 지역사회이다”(Altinay, Hakan, 2010). 교사와 학생들은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의 모습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2018년에 제가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저는 “Malaysia Batik: 독특한 말레이시아 미술의 소개”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저의 비전은 간단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 미술의 다양성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미술 교사는 아니었지만, 미술을 향한 저의 열정은 SUTA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부터 불타 올랐습니다. 공업 학교에 배치된 경험을 한 비(非)직업훈련과목 교사로서, 저는 말레이시아로 귀국한 후 이것이 세계시민의식교육과 함께 교육과정을 통틀어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귀국한 후, 저는 저의 학생들, 저의 학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프로그램들 중 제일은 바로 국제학생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세계적 이벤트에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한날의 꿈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 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큰 성취를 내기 어렵지만, 저희는 교사로서 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2019년 7월에 한국 교사들과 한국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초대했을 때, 한 학생이 제게 했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선생님, 한국인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TV에서 K-드라마나 케이팝 클립 영상을 봤을 때에만 한국인을 봤었거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저의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 준 많은 이유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시행된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은 지금껏 진행된 여러 활동들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로 말하기 매우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 및 교사들과 대담하게 의사소통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학교가 글로벌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동아리를 설립했을 때,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는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전에는 자신들의 배경과 전통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 세계시민교육이 도입되었을 때, 마침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관련된 독특한 측면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했던 점은 세계시민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STEM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비(非)직업훈련 학교의 교사로서, 제가 서울 공업고등학교에 있었을 당시의 경험은 저로 하여금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탐색하는 기회를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얻은 지식을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에 노출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전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드론 기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사용할 드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드론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감춰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학생들 중 일부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처음으로 국제 드론·로봇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접한 교사로서, 저는 세계시민교육의 혜택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공유 세션을 학생들, 교사들,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했고, 대학교 및 전문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의 학습과정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세계시민교육을 국경 너머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나아가, 저는 지리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시행에 대한 학술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술서를 집필한 주요 목적은 말레이시아의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지리학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학술서에서는 2021 한국-말레이시아 교사교류 프로그램, 즉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봉쇄령을 내렸고,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학습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인 교사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색종이 한복 만들기, 빙수 만들기, 그리고 한글 배우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교육이 학생 교육의 개발과정에서 가치있는 기회와 경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SUTAS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은 온라인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2019년도에 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에서



국제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전세계를 괴롭게 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최대한 빨리 사라져서, 활기찬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ohd. Saifullah Bin Mohd Jendeh

유엔의 제8대 반기문 사무총장이 했던 훌륭한 연설을 말씀드리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시민의식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문해력이나 수학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공정하고, 평화롭고, 관대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전적으로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인 우리는 교육 분야를 이끄는 데 있어 기둥과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시민 여러분! 제 이름은 Farid Mohamad Fauzi이며, 부르기 너무 길다고 느껴지시면, 그냥 Farid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외곽에 있는 Selangor의 Sungai Kertas National Secondary School에서 지리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말레이시아인 교사들은 2018년과 2021년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매우 값지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시간을 제공해 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글의 제목은 ‘세계시민교육의 시행: 수타스(SUTAS)의 글로벌화’입니다. 수타스(SUTAS)라 불리는 저의 학교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5년이상 운영되어 온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 대부분은 좋지 못한 생활 환경과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비교적 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학교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UTAS의 글로벌화를 향한 여정,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 특히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교육개발계획에 명시된 교육에 대한 6가지 열망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SUTAS의 주요 목표이며, 이와 같은 열망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및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연계 및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저는 학생들의 높아지는 자신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은 이곳에서 사는 동안 자신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생들은 ‘커뮤니티’, 즉 지역 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전세계이고, 전세계는 지역사회이다”(Altinay, Hakan, 2010). 교사와 학생들은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의 모습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2018년에 제가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저는 “Malaysia Batik: 독특한 말레이시아 미술의 소개”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저의 비전은 간단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 미술의 다양성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미술 교사는 아니었지만, 미술을 향한 저의 열정은 SUTA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부터 불타 올랐습니다. 공업 학교에 배치된 경험을 한 비(非)직업훈련과목 교사로서, 저는 말레이시아로 귀국한 후 이것이 세계시민의식교육과 함께 교육과정을 통틀어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귀국한 후, 저는 저의 학생들, 저의 학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프로그램들 중 제일은 바로 국제학생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세계적 이벤트에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한날의 꿈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 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큰 성취를 내기 어렵지만, 저희는 교사로서 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2019년 7월에 한국 교사들과 한국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초대했을 때, 한 학생이 제게 했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선생님, 한국인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TV에서 K-드라마나 케이팝 클립 영상을 봤을 때에만 한국인을 봤었던거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저의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 준 많은 이유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시행된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은 지금껏 진행된 여러 활동들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영어로 말하기 매우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 및 교사들과 대담하게 의사소통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학교가 글로벌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동아리를 설립했을 때,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는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전에는 자신들의 배경과 전통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 세계시민교육이 도입되었을 때, 마침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관련된 독특한 측면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했던 점은 세계시민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STEM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비(非)직업훈련 학교의 교사로서, 제가 서울 공업고등학교에 있었을 당시의 경험은 저로 하여금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탐색하는 기회를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얻은 지식을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에 노출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전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드론 기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사용할 드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드론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감춰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학생들 중 일부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처음으로 국제 드론·로봇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접한 교사로서, 저는 세계시민교육의 혜택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공유 세션을 학생들, 교사들,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했고, 대학교 및 전문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의 학습과정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세계시민교육을 국경 너머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나아가, 저는 지리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시행에 대한 학술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술서를 집필한 주요 목적은 말레이시아의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지리학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학술서에서는 2021 한국-말레이시아 교사 교류 프로그램, 즉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봉쇄령을 내렸고,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학습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배움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인 교사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색종이 한복 만들기, 빙수 만들기, 그리고 한글 배우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교육이 학생 교육의 개발과정에서 가치있는 기회와 경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음을 보여줬습니다.



SUTAS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은 온라인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2019년도에 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에서 국제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전세계를 괴롭게 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최대한 빨리 사라져서, 활기찬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SABAH의 메시지

Norsheila Binti Julmohamad

1. 소개

가람고등학교.

John Dewey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닌, 삶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한 말을 기억하며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도 한국-말레이시아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 체계를 가진 상위 5위 안에 드는 국가로써, 저는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삶을 통틀어서 가장 모험적이고 독특한 체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있는 가람고등학교에서 보낸 12주의 여정은 정말로 유익한 체험이었습니다!

2.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기

저는 이 학교에 온 첫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저를 보자마자 매우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건 제가 머리에 히잡을 쓰고 있고, 그들과 다른 외모를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으며, 저는 학교와 지역 사회, 특히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1일차에 학교 관리자와 만난 후, 저는 이들이 보여준 친근하고 따뜻한 환영식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에게 인사한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은 저희를 만나게 되어 매우 들떴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노란색 히잡을 쓰고 있던 그 날, 저에게 찬사를 보냈던 교장 선생님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미소를 짓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자(그는 저의 히잡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만큼이나 발랄하고 밝아 보이는군요”. 이것은 이 아름다운 여정의 그저 첫 번째 부분일 뿐입니다.

그 당시, 저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염려했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다뤄야 한다는 점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어 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영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는 외국어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회화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배치학교에서 영어를 꽤 잘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많았다는 점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와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교사들 중 한 명을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는 것을 항상 기쁘게 여겨, 그는 매일 저에게 다가와 말레이어로 “좋은 아침입니다”를 의미하는 “Selamat Pagi”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들이 말레이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 마치 모국에 있는 것 같았고, 그 순간마다 이들과 매우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3. 배움과 적응

실전 경험을 통한 교사들의 글로벌 교육 및 문화를 넘나드는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는 본 사업에 대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포함하여, 제 배치학교에는 제 주의를 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유용한 정보를 주는 흥미로운 지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는 그저 배움 과정의 일부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서로 교환하며, 한국의 교육 체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림고등학교에는 교사와 직원 약 90명, 그리고 총 916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1학년(16세), 2학년(17세), 그리고 3학년(18세) 세 개의 학년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가림고등학교에는 모범적이고 좋은 관습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 학교 문화, 교실 관리 및 활동, 수업 기획 및 시행, 그리고 학생과 직원의 복지를 포함합니다. 학교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수업은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9시까지 20분은 담임 교사가 담당 교실에서 조회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사이 10분 간격을 둔 아이디어가 인상깊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다음 수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 또한 스스로 준비할 수 있고, 짧은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학생들보다 더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학교 문화의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실 내에는 교사들이 수업 중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어느 교실에도 교사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사들도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보통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둘째,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사용 출석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사들이 출석부에 기록하지 않고도 제시간에 교실에 들어오고,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사들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 매우 수양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보통 실제 수업이 시작되기 15분 전에 교실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좋은 학교 문화 중 하나입니다. 셋째, 이곳의 교실 청소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이 시작하기 전 그리고 마지막 교시가 끝난 후 교실을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게 합니다.

교실 관리 및 활동 측면에서 저를 놀라게 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교사들은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교실 내 학생들에게 부여된 번호를 불렀습니다. 가림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이름이 적힌 사진이 인쇄되고, 교사의 책상에 학생들의 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수업 기획 및 시행의 경우, 같은 과목을 여러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학년의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교실에서 가르칩니다. 각기 다른 교실의 학생들이 비슷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울 내용에 대해 미리 논의합니다. 하지만, 활동을 적용하고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교사들의 창의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은 어떤 반이 시험을 앞두고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학생 및 직원의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보건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림고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는 이전에 개인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자유롭게 보건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학생 및 교사들은 보건교사의 조언을 받고 추천서를 받아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교실에는 컴퓨터와 프로젝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USB 기기를 가져와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는 교사에게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4. 교육 활동

가림고등학교에서 보낸 12주의 기간 동안, 저와 제 파트너, 그리고 다른 학교에 있는 말레이시아인 교사 동료들은 말레이시아 데이를 꾸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The Connecting Classroom Club의 구성원들을 이 이벤트의 도움으로 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데이를 가진 목적은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말레이시아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5개의 부스가 있었으며, 이는 요리 부스, 전통 의상 & 포토부스, 미술 & 공예품 부스, 전통놀이 부스 및 음식 시식 부스였습니다. 각 부스에는



담당 교사들, 그리고 동아리 멤버로 구성된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오후 1시 40분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제 주목을 끈 또다른 것은 The Connecting Classroom Club이었습니다. 가림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활동 동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동아리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동아리마다 굉장한 활동들이 많았고, 전세계(페루, 인도, 중국, 홍콩,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온 교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년도에는 TEEN Times, STEAM 캠프, 세계시민캠프, 굿모닝 가림!, 할로윈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동아리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전세계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커넥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이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Connecting Classroom Club을 시행할 경우, 학생들이 전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전에 Be Global!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가림고등학교와 SMK Balung 사이에 진행된 Connecting Classroom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물론 글로벌 학습을 홍보하고, 두 학교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기반하여, 학생들을 위한 의미있는 학습체험을 공유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글로벌 테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새로운 국제 학교 파트너십을 개발합니다. 또 학생들이 넓은 세계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게끔 돕습니다. Connecting Classroom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전세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얻고, 그러한 방법을 배우며,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Be Global! 이 프로젝트에는 펜팔 프로젝트, 일대일 교류, 박스 속 문화, 그리고 현지와 연결되기와 같은 네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활동의 가장 좋은 점은 참가자들이 다른 이들과 연결점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변화

3주라는 기간은 짧아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3주라는 기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말레이시아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저는 삶을 뒤바꾼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다양한 장소에서 온 교육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 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리더십 기술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또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커넥션을 만들게 하고, 이들을 세계시민으로 길러냅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처음 저는 다양한 문화응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했던 많은 일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로 하여금 제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저는 진심으로 저의 기술과 능력이 발전했다고 느낍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제 목표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공감능력을 더욱 키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고, 제가 느끼기에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된 것만 같고, 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6. 교육 시스템 시행하기

말레이시아로 귀국한 후, 저는 한 사람이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의식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위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존경심을 가지게끔 합니다. 이는 개인들로 하여금 정당하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을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교사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며,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인 인식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교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끈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공정의 기회는 늘어나고, 학생들이 받을 수업은 더욱 일상과 밀착되며 보다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저는 이곳의 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배치학교에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후속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벤치마킹 학교 방문 프로그램인 BE GLOBAL! 후속활동 및 “Best Version of ME!”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는 오직 온라인 활동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세계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공유하는 활동, 웨비나 또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기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웨비나, 다문화 문제를 다루는 대화, 세계시민교육 등에 참여하면서 저는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사 및 학생들에게 사전 지식, 문화적 지식,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교사활동을 하게끔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문화·성별·연령·인종·종교·경제적 상황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교육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육 과정, 교육 지침, 학교 관리 업무 또는 평가와 같은 모든 일들 말입니다. 교사들은 학습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동시에 이 업무들을 모두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로티 치나이 roti canai(인도계 무슬림의 아침 식사)”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치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 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매일 듣고 관찰하는 ‘다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은 다른 이들도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름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문화적 감수성을 발달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문화를 익히는 방법을 배우고,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문제와 경험들은 정말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여정이고, 성장과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한 나의 교육교류 경험

말레이시아

‘우리는 그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Khairunnisaa binti Mohamad

‘니사썸! 저는 어제 가정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이 메시지는 제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했던 2019년도에 만난 학생 예서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천 양촌중학교의 동료 및 학생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서 학생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인천 양촌에서 보낸 마지막 날인 2019년 11월의 바로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였습니다. 저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파트너인 말레이시아 선생님 Lee Mon Chooi씨는 그녀의 장갑을 제 문 앞에 두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Walao eh (오 세상에), 날씨가 너무 춥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추운 날 평소처럼 1.4km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노란색 나뭇잎이 거리를 채우는 광경을 보고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은행 열매를 밟지 않으려고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지요. 그 순간,



한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저희는 등교하는 매일 아침 그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희는 아주머니께 인사하고, 아주머니도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이었지만, 매일 그분과 인사를 나누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걷다가 한 빵집에 들렀습니다. 신선하게 구운 빵의 냄새는 저를 배고프게 만들었지만, 그 날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 빵 가져가세요! 아침 식사로 드시면 되겠네요!’ 그 빵집의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주인 분은 신선하게 구운 마늘빵을 포장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와 빵집 주인께서는 저와 제 파트너가 빵집을 떠날 때 부엌에서 미소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걸어 제가 평상시에 방문하는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제가 커피숍 문을 열기 전부터 바리스타의 얼굴이 밝아졌고,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드시던 것으로 드릴까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문하던 것(뜨거운 라떼)으로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 김밥 가게에 들러 평소처럼 참치주먹밥을 주문했고,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러 Mon Chooi씨의 아침식사거리를 구매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1학년 남학생들이 수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손을 흔들며, 매우 밝게 저희에게 인사해주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따라잡을 때까지 아이들은 저희를 기다려주었고, 저희는 함께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평범한’ 등교 시간을 기대했기에, 매일 집에서 매우 일찍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웃음은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아침의 인사는 마지막 아침인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 바로 저희가 그들을 만나는 마지막 날인지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엄마의 미소를 땀 한 사람이 밝고 높은 톤으로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International Zone 실에서 컴퓨터로 레슨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더 많은 음식과 갓 따온 야생화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우리의 협력교사 이은경씨였습니다. ‘아... 나는 그녀가 정말로 그리울거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SSAEM 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의 아침 인사, 웃음, 밝은 에너지, 그녀의 조언, 그리고 그녀의 모든 존재가 그리울 것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 저에게 ‘좋은 교사는 아우라를 풍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를 볼 때, 저는 정말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교사이며, 저는 그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매우 신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저는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의 새로운 동료가 나와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나의 협력교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말레이시아에서 Fulbright English Teaching Assistant의 멘토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멘토가 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멘토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학교 행정업무, 계획, 학생지도를 번갈아 해야 하고, 외국인과 의사소통해야 하며, 멘티의 요구사항을 귀기울여 들어야 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 민감해야 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보고, (자신 스스로도 잘 모를 수도 있는) 내 자신의 문화 또한 소개해야 하고, 또 매우 지쳐서 혼자 있고 싶을 때조차 멘토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걱정들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사무실에서 저의 협력교사 이은경씨를 처음 만났을 때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저와 제 파트너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으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우 환영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협력교사는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녀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통역사(저의 동료 교사인 제니 또는 영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인 미림이), 통역 앱, 능숙한 바디랭귀지, 콩글리쉬 또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게 된) 올바른 한국어의 사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주 아침 사무실에서 저와 제 파트너에게 항상 인사했고, 저희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 점심을 먹었으며, 학교 주변을 함께 걸으며 모든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저희는 날씨에 대해서, 다른 때에는 나무, 꽃, 곤충에 대해서, 그리고 또다른 때에는 더욱 진지한 모드가 되어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서로 다른 교육 체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운이 좋을 때, 우리는 바깥바람을 쐬러 밖에 나온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학교 농장에서 탄 신선한 방울토마토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농장을 가꾸거나 농장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심 후 활동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저와 제 파트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 협력교사는 복도 주변을 걸을 때 보통 5G의 속도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녀는 시간 낭비를 싫어했고, 평소 그녀가 담당하는 일을 매우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그녀에게 휴식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제가 그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이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의미하니까요.

저와 제 파트너는 화창한 햇빛을 볼 수 있는 양촌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록 각기 다른 인종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사는 학생들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 아이들인 학생들은 피부색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인종차별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가꾸는 것은 우리 성인들의 몫입니다. 관리자, 교사, 학교 직원, 급식실 아주머니들, 경비원, 학생, 그리고 양촌시 지역 주민들은 저와 제 파트너로 하여금 우리가 매우 큰 사랑과 환영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역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실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들은 오직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언어, 또는 우리의 피부색, 또는 머리에 쓰는 무언가)을 무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저와 제 파트너가 평범하게 인천 양촌중학교에 등교했던 그 순간이 그림고, 아침에 함께 걸었던 그 길 그리고 하교길도 그림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양촌시의 작은 지역사회가 그림습니다. 저희는 이제 귀국하여 고향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만, 오늘날의 발전된 기술 덕분에 저희가 양촌중학교가 있는 그곳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저희 카카오톡 그룹 채팅 방에서 저와 제 파트너는 양촌시에 있는 저희의 동료들과 학생들이 보낸 다양한 사진을 보며 한국의 아름다운 계절들을 종종 감상할 수 있었고, 반대로 동료들과 학생들도 말레이시아의 풍성한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은 저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Natasya Haswani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은 아주 높은 수준의 탁월함, 전문성, 지능,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전념하면서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수준을 보장할 것입니다. 저도 교사로서 고국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전무했던 저에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쌓은 경험은 다소 특별했습니다.

제 이름은 Natasya Haswani binti Hassan Merican이고, 말레이시아 중산층 출신입니다. 현재 셀랑고르 SMK Sungai Kertas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멋진 친구들과 함께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학교는 한국 담양중학교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 수업을 맡았고, 수업 주제는 '발효 과정, 말레이시아와 한국 전통 음식('타페'와 '김치')의 유사성'이었습니다. 본 수업의 주제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전통 음식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의 독특성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학습 목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제게 가장 소중한 경험은 바로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소통 방법을 배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소통법이야말로 성공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첫 단추임을 배웠습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 해도 팀원으로서 각자가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다문화감수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역사와 삶의 경험, 믿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고, 전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과학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문화감수성을 기르고 이를 다양한 주제에 연관지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타페를 만들 때와 한국 전통 음식 김치를 만들 때 발효라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을 알게 되고 직접 타페를 만들어 보며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교육자라는 직업에 대한 제 태도를 재고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시간 관념이 매우 철저합니다. 교육계를 비롯하여 한국인들의 삶에서는 시간 엄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이 오전 9시에 시작된다고 하면 학생들은 오전 8시 30분에 이미 교실에 도착해 있으며 그날 배울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 엄수는 제 시간에 업무를 끝내도록 하는 예의와도 같은 것이며 이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이의 시간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잘 압니다. 즉, 시간을 잘 지킬 때 사람은 삶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배운 한국인의 태도이며, 이러한 시간 엄수 태도는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지역 사회의 업무 문화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바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실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교사 중심적 사고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결과 중심 학습에서 과정 중심 학습으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에서 지식을 구조화하고 응용하도록 하는 교사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런 업무 문화를 교사로서 제 자신의 업무에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새로운 전통과 관습 등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 중 하나로는 제가 사귀 좋은 친구들, 특히 한국인 동료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됩니다. 향후 여행의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 경력에 있어 나중에 중요한 인맥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으로 갈 기회가 있다면 한국 학생들이 타페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한국-말레이시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온라인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과 함께 타페를 만들었지만 저는 그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을 만드는 법을 직접 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 학생들과 함께한 원격 수업에 관한 경험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 일주일 전, 저는 타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인지 게시했습니다. 제 수업의 내용은 학생들이 타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타페를 만드는 데에는 발효 과정이 필요하여 며칠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 이틀 전에 타페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수업 중에 저는 타페와 김치의 특징, 차이점과 유사점에 관해 설명했으며, 타페와 김치 모두 발효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발효법의 이론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미 만들어 둔 타페를 접시에 예쁘게 올린 뒤 사진을 찍어 제가 공유한 Padlet 링크에 업로드했습니다. 수업에 즐거움을 더하고자 가장 예쁘게 타페를 장식한 우승자 3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승자에게 줄 선물은 나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즐거웠던 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타페를 준비하고 장식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교류학교가 남학교인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직접 타페를 만들고 장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알려주기 위해 선생님이 모든 세계적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설령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낀다 해도 아이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동일한 기본 욕구를 갖지만, 이를 충족하는 방법은 정말이지 매우 다양합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젠더와 문화, 계층, 국적, 종교, 민족, 언어, 지위의 다양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잘 성장하려면 학습자들은 본인의 독자성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하고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Oyunmaa Donrov

제 이름은 Oyunmaa이고, 몽골 남동부 도르노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했습니다.

3달 동안 인천 만석초등학교의 친근하고 친절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하며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기르고, 꿈을 이루게 도와 주며, 지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법과 다른 이들을 돕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경,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른 아시아 출신 선생님들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몽골의 전통, 역사 및 문화를 널리 알리며 교사 경력에 새로운 페이지를 엮으로써 저 자신이 성장하게 되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백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절감합니다.

한국에서 수업을 하며 글로벌 교육 동향, 국가 개발, 사회적 문화, 인간관계, 태도, 학습 및 수업 환경, 학습 관리 및 교육 방식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만석초등학교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에서 배운 점을 만석초등학교에 알려줄 수 있던 이번 기회는 세계시민교육에 이바지하는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7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에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국가의 수준 높은 사회적 발전 및 문화 수준은 어린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야만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면 미래에는 더 훌륭한 어른이 많아질 것이고 나라 또한 발전할 것입니다.

만석초등학교 학생 529명이 제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마주치는 횟수와 관계없이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후 저희는 “세계 속의 몽골 어린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활동 5가지는 애국, 긍정적인 태도, 몽골 유산에 대한 자부심,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을 가르쳐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및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몽골과 일본, 한국 문화를 다루는 수업이 시민 교육 및 인문사회 수업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기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언젠가 어른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배우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덜할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할 수 있다’ 보드에 자신의 모토나 꿈, 자신과의 약속을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용서의 보드’도 만들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이 활동은 모든 아이들이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래 집단 만들기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온종일 학교에 있어도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지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자리를 바꿀 때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 또한 매주 자리를 바꾸어 새로운 친구와 함께 앉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학부모 운영위원회 및 지역 업체와 협조하여 'Free Season' 주라는 견학을 계획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빵을 그저 주기 보다는 그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함께한 기업으로는 지역의 밀가루와 생수 사업을 하는 도르노드 Guril LLC와 Water LLC, Eastern 에너지 시스템 LLC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예와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독창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세르켈링 지역 'Herder's Campus' 소속의 양치기와 학생 보호팀은 '성장하는 내가 되자'는 교육 내용을 만들어 3일 간 8시간을 교육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활동은 '돌봄 챌린지'였습니다. 학생들은 양로원을 찾아가 활동을 진행했고, 그곳의 요리사와 웨이터 분들에게 감사편지를 쓰고 자선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원격 수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2달분의 데이터를 주기도 했고 장작과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며 우리는 어린이의 궁극적인 목표가 완벽한 학습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이가 사회적 활동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자신감을 키우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가진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루어진 교육 활동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아닌 바로 우리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 속의 몽골 어린이' 프로젝트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인간관계-스트레스 없는 학습'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교실 및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막과 숨에 있는 교사 811명과 학부모 184명에게 한국의 교육 동향 및 방법과 실제 사례를 전하였습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세계 시민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저는 Rainbow-89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여 아시아 출신 교사들과 89일간의 세계교육 일기를 적기 시작했고, BMDI와 NPO, 지역 협력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한 덕분에 세계 모든 시민은 인종과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기에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스스로 성장하며 세계시민교육을 알고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프로그램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전 세계 교육자들이 국제 문화와 교육, 시민 교육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Munkhtsetseg Byamba

2019년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에게도 놀라운 해였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한국인 영어 선생님 및 가정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고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태호 영어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한국 케이팝과 드라마 스타들에 대해 질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길.

항상 가고 싶었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에 마침내 제가 파견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담감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 가족과 저는 제가 파견교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저는 대구 성명초등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3일부터 시작된 한국 생활 동안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수업에도 임했습니다. 학교 직원, 관리자,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학교 투어, 참관 수업, 견학, 방과 후 활동, 야외 소풍, 문화 수업 등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몽골어 번역기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어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지만 김무숙 선생님 덕분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언어 외에도 김선생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건물, 시설, 교실, 교실 환경, 시각 자료, 학습 및 수업 자료, 공교육 과정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차용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정말 만족스러웠던 점은 바로 특수 학생을 위한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특수 학생들을 국어와 수학 수업 시간에만 동급생들과 다른 반으로 가 수업을 들었고, 그 외 수업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임했습니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시험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 문화에 관한 수업을 맡았습니다. 저희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무척이나 기뻐고 학생들도 몽골 문화에 강한 흥미를 보였으며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덕분에 더욱 흥미롭고 소중한 문화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난 뒤 저는 요즘 제 학생들에게 몽골의 문화와 전통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전통적인 유목 생활의 관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문화를 통해 배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교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다른 나라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게는 Kristine Joan Barredo라는 필리핀 교사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지역 영어 교사들을 초대하여 지속 가능한 GCED 개발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SSAEM 컨퍼런스에 참여했으며, 교환 교사 및 교사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환 교사의 청사진: 문화 및 커뮤니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 통합 및 장점

필리핀

Shirley E. Alambra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국제적인 경험을 하려는 교사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며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해외 공인 기관에서 가르칠 자격을 갖춘 교사들에게 방대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다시 제 나라로 되돌아가면 교사들은 각자의 수업과 지역 사회 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실천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교사들은 대부분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근무합니다. 한국으로 와 유네스코 산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사 및 학생들 모두에게 글로벌 경쟁력 및 학문적 우수성을 향한 잠재력을 달성 및 최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2016년에 한국-필리핀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교환 교사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해외 파견교사 활동에는 자기 희생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조국과 가족, 친구들을 떠나 3달간이나 생활하는 선택을 했다는 면에서 자기희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언어 장벽과 문화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색함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단순한 제스처와 손짓으로 교정 안팎에서

이러한 언어적 장벽을 어찌저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황이 얼마나 힘들든 간에 의지와 집념이 있다면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 열심은 제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단소'와 '사물놀이'를 배웠을 때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 수업 시간 발표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필리핀 노래와 춤을 가르쳐 주자 학생들이 매우 즐거워하며 노래와 춤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음악이 문화적인 차이를 허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교환 교사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며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는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농촌에 자리한 가남초등학교였습니다. 그곳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모두 뛰어나고 훌륭했습니다. 저는 한국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학교 및 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며, 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고향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시간'이라 불리는 개념이 있기에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알아서 학습을 이어 나갔습니다. 반면, 선생님들은 수업 자료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고 학교 교장 및 정부의 지원도 탄탄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가족 관계가 탄탄하여 지역 사회의 유대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이해하게 되자 너무나 본받을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전체적인 문화는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얼마나 많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하루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미리 맞춰진 수업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어 굉장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웠고, 자료들이 모두 완성되어 있었으며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사소한 일을 처리할 시간이 있었고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에도 안전하고 믿음직한 시스템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저를 성장하게 도와주었고, 팀 전원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 준 덕에 언어도 늘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평가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길러주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신념을 포용하는 정신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이 나라의 더 나은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지속가능한개발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여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학생들도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개인적인 선택권을 가지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가져온 새로운 것과 문화는 완전히 흥미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학생들에게 김치를 만들고 맛보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 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학교에 건의할 수 있었습니다. 3달 가량 기본적인 '학원' 스타일 수업을 방과후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 학생들은 새로운 언어, 음악, 춤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경험은 배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가 천천히, 하지만 크게 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런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다른 학생들을 만나 지속가능한개발이 무엇인지, 세계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할 때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4가지 SDG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 평등을 위한 SDG 5, 기후 행동을 위한 SDG 13,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을 위한 SDG 17, 양질의 교육에 대한 SDG 4입니다. 팬데믹 시기임에도 학교 중심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 교육의 유형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저희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서의 도움을 받아 세계시민교육과 세계시민 정신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과 활동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열망에 불을 지피는 불꽃이 되고 있습니다. 교환 교사로 지낸 제 개인적인 경험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어떠한 지역 또는 국제적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필리핀 케손 시 여러 공립학교의 학생 약 100여 명을 모집하며 올해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최고의 학생들이고 학생 관련 정부 기관의 관리입니다. 이런 멤버들 덕분에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활동을 부서 및 지역구 수준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고, 청소년



관련의 웨비나, 포럼, 집중 그룹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과 경험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반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단계의 도전 과제가 있었고, 심신의 압박도 상당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와 명확한 목적을 지니며 이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종, 피부색, 신념 등 서로의 다른점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우리의 열망과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작지만 긍정적인 행동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는 점입니다.





George B. Borromeo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의 옹호자로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모험의 소중한 순간순간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으로 한국-필리핀 교사교류 프로그램(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 KPTEP)에 참여한 때는 2018년이었습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젝트(Re-Entry Application Project, REAP)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PLAC: 전문적인 학습 행동 셀 구축”이라는 배치학교와 모교가 참여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던 첫 번째 단계에서 남양주 송라초등학교에서 선정된 교사 및 학생들이 저희 모교인 페드로 게바라 초등학교를 방문하였고, 이를 계기로 문화 간 활동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6일에 배치학교의 경미현, 이상열, 정찬욱 선생님 3분과 학생 16명이 한복을 입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통 의복을 입은 교사, 학생, 일반 부모-교사협회 직원, 지역 공무원, 교육부 공무원이 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며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고 카메라는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대표단이 입은 다채롭고 멋진 의상이 그날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워 주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한국 방문객들은 필리핀 토박이들이 북부 지역에서 가져온 전통 쌀로 만든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환영식은 오전 8시에 시작되었으며, 한국과 필리핀 전통 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팀은 부채춤과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 유명한 BTS 노래와 춤이 함께하자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 관광무용단과 마닐라 무용단의 예능인들이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지역의 전통 춤을 선보였습니다. 페드로 게바라 초등학교의 댄스 동아리 또한 이 공연에서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 전통춤과 현대 무용으로 꾸며진 축제는 전 대표단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즉시 웃을 갈아입고 체육 공개 수업에 임했습니다. 달리 또 선정된 6학년 학생들이 한국 대표단과 팀이 되어 파틴테로와 톰방 프레스 등의 전통 필리핀 게임(라로 응 라히)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로 간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이해했고 활동을 통해 우정을 다졌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필리핀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공개 미술 수업에 참여하며 한국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방문객들이 여러 장 겹쳐 만든 친선 카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페드로 게바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국 대표단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흰색 셔츠를 주었고, 그림을 그린 티셔츠는 우정의 기념품이 되어줄 것입니다. 실크 스크린 인쇄 단계/과정을 적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오리지널 디자인 셔츠를 나만의 프린트로 만들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여러 명이 다함께 참여한 활동을 끝낸 뒤, 현지 공무원과 GPTA 직원들이 호화로운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인 레촌 외에도 아도보, 피낙벳, 시니강, 카레카레, 피치피치가 제공되었습니다. 할로할로와 망고로 식사를 마무리하자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축제와 같았던 점심 식사가 끝나고 페이스북 계정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신분이 다른 두 지역 사회 간에 친밀감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정체성을 이해하는 마음과 우호적인 관계, 친밀감 등이 생겨났습니다. GCED의 옹호자로서 대표단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공개 영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영어 노래와 재즈 찬트로 대표단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간식인 팔리타우와 바나나 케이크를 만드는 공개 요리 수업으로 오후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선생님이 알려준 과정을 그대로 따르면서 본인만의 요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페드로 게바라 초등학교에서 선정된 14명의 선생님들이 남양주 송라초등학교를 방문한 때는 2019년 10월 24일에서 29일로서, 전체 프로그램이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쯤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두 국가 간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이들이 다시 만나는데 전혀 방해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언어 장벽은 소통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동체의 좋은 관례와 활기찬 전문 학습 공동체를 탄탄히 하는 우정을 쌓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작은 깃발과 배너가 귀가 즐거워지는 학교 심포니 밴드와 조화를 이루며 필리핀 대표단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5학년 과학 수업, 2학년 로봇 수업, 유치원생 미술 수업, 3학년 음악 수업 등 공개 수업에서 진행되는 활동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대표단은 현대적인 버전의 교실 활동을 직접 보면서 오후 시간 투어에 들뜬 기분을 느꼈습니다. 학교 곳곳에 자리한 21세기형 모방할 가치가 있을 만큼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의 연결 고리가 두 개의 다른 고리로 다시금 연결되었습니다. 인종도, 피부색도, 어떤 장벽도 관계 없는 고리들이 아이들은 연결해준 것입니다.

‘프로젝트 iCARE: 모두를 존중하고 성장하게 하다’는 제가 옹호하는 바의 세 번째 이정표를 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PLAC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사랑의 연결고리를 더욱 이어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은 재난 위험 경감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두고 “BERT: 바탕 비상 대책 팀”이라 불렀습니다. “BATA”는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필리핀어입니다. 이들은 응급처치 훈련을 통해 재난 시 목숨을 구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책임자가 본인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필수적인 생활 기술인 “BERT”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의 중요성도 4R, 즉 감소(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존중(Respect) 캠페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BERT’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환경 인식 및 지속가능성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프로젝트 iCARE 활동 일환으로 ‘마닐라 만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고, 전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에 실렸습니다. 프로젝트 PLAC는 단순한 지원 프로젝트가 아닌,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담은 것입니다.

영어 단어 “은”에서 유래된 PLAC “필락”은 열과 전기의 우수한 전도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나라를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과 같은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 계속해서 서로의 열정을 불태우자는 프로그램의 정신을 설명해줍니다.

현재 저는 마닐라 시티학교 부서에서 학군지 담당자로서 경력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지만, PLAC의 에너지와 불꽃이 가장 빛나는 햇불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2020에는 “파이브 스타: 학생 및 교사의 성취가능한 결과를 향한 융통적인 교육 동영상”을 통해 교사들에게 교육 동영상 수업을 개발하기 위한 길을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등 프로젝트의 눈부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닐라 교육부 교사 약 11,000명에게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인지적, 사회 정서적, 행동학적 등의 GCED 핵심 개념 차원을 바탕으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시청 수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이벤트에는 거의 10,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 후, 참여자들은 모든 학년의 학습 영역에 GCED 개념을 포함시키는 파이브 스타 학습 동영상 콘텐츠를 개념화하고 제작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36건의 학습 동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이번 학년에는 216건 넘게 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질이 보장된 학습 동영상 콘텐츠는 현재 마닐라 교육부 전자도서관에 업로드되며, 교사 및 학생 모두에게 학습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군 교육장 Maria Magdalena M. Limm 박사가 이끄는 이 학군의 독특한 프로젝트는 사랑의 연결고리와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를 끊임없이 연결하는 한편,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기까지한(VUCAD)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다른 위기 상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연결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기술의 힘을 빌어 항상 우리를 계속 단단하게 연결할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줌을 통한 온라인 소통과 회의로 제 협력교사에게 인사를 하고 다문화와 영어 수업이 어떠한지 안부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한 게임을 학생들이 여전히 즐기고 있는 모습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이야말로 마치 마법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가진 영향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저의 여정은 인생 최고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정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며 동료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시도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과 노력이 모두가 사랑의 연결고리와 닿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속하게 해 줄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의 양상은 바꿀 수 있으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YAKAP까지

필리핀

Kristine Joan DA. Barredo

2019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그러니까 한국-필리핀 교사교류 프로그램에 필리핀을 대표하여 필리핀 교환 교사로 선발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한국 교육부, 필리핀 교육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지원 덕분에 다른 문화 간 이해를 고취하는 대표단으로서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하고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수업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초등 교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이곳이 교육을 선도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교사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실 내 학생 관리가 탁월하고 중요한 한국의 가치를 알려주며 첨단 기술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리핀과 한국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어 갖는 태도와 사랑, 헌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기쁩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가 진행했던 수업 중 최고의 바로 '음식의 중요성 알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안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식사를 잘 마쳐 식당에서 버려진 누적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제 수업 내용이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의 캠페인과 제가 진행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음식 1온스의 가치" 등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제로 헝거 챌린지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계획에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을 이용한 세계 시민교육: 21세기 학습자의 필요 충족'을 제목으로 한 행동 연구를 포함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수업 시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을 적용하여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통한 세계 시민 교육 통합을 위해 제가 개발한 수업의 예시안입니다.

- 수업 1: 우리의 뿌리 알기: 고대 필리핀인
- 수업 2: 필리핀으로의 여행
- 수업 3: 인류애와 생물권의 상호의존성
- 수업 4: 필리핀 문화 및 전통
- 수업 5: 필리핀 민속 무용: 역사, 문화 및 전통 지속의 상징
- 수업 6: 음식의 중요성 알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수업 7: 플라스틱 문제: 크든 작든 모든 변화가 중요하다
- 수업 8: 평화 옹호, 권리 주장, 공동체 구축을 통한 장벽 허물기
- 수업 9: 사우스코타바토의 드림위버스
- 수업 10: 필리핀 국가 상징

앞에서 강의를 하는 제 경력 덕분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광주 필리핀 영어교사협회, 광주 부설초등학교 교사진 동아리와 같은 기관 및 단체에 초대를 받아 필리핀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제가 지난 2019년 "YAKAP: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청소년 옹호 활동 및 지식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필리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 다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모든 학습 분야에 걸쳐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21세기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옹호 활동은 문틴루파의 청소년 단체를 활용하여



시행되었으며 지식 접근법(수업 예시안)은 투나산 초등학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평화와 인권, 문화 간 이해, 다양성 및 존중 및 관용, 포용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모든 학습 영역의 세계 시민교육 통합을 통해 지식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이 넘치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행동하는 기여자로서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GCED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영역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안을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YAKAP의 업적도 다양합니다. 저는 아랄링 판리푸난에서 영어와 과학 부서 교육 행동 부서의 선별 교사 코디네이터로 초대받았고,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개발목표 옹호 캠페인의 차원으로 프로젝트 YAKAP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YAKAP은 문틴루파 내 청소년 리더 200여명 및 기관이 함께 글로벌 시민 정신에 관한 청소년 옹호 활동을 홍보하는 청소년체육진흥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GCED를 통합했습니다. 또한 GCED의 지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020년에 팬데믹으로 저는 GCED와 SDG 수업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문틴루파 학군실과 파트너십 하에 1회 온라인 SDG 청소년 행동 포럼(2020년 6월)을, 교육부 국제 협력실과 파트너십 하에 국제 SDG 청소년 행동 포럼(2020년 8월)을, 필리핀 내 다양한 청소년 기관과 파트너십 하에 #TeachLove 4SDG를 이끌었습니다.

한국 주재 필리핀 영어 교사 커뮤니티(익산 커뮤니티) 및 연합 필리핀-한국 패밀리 UFF(부산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몽골 오유니 이레뒤 복합학교 및 다르칸을 지방 인근 학교의 선생님들, 광주 필리핀 영어 교사(GFET)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네팔에서는 네팔 출신의 학생인 Prapri Timilsina의 협력교사 역할을 하며 농업 부문 필리핀 청소년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쌓은 경험이 토대가 되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초대로 한국 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자료 개발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초등학교 수준 윤리수업과 필리핀과 한국의 쌀 문화를 다룬 동영상 수업 2편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CED 교육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관련 GCED 온라인 캠퍼스의 교육을 받을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Cawagas 박사의 시각, 목적 및 실무와 TIU/GCED에 관한 20세기 아태 지역 교육 워크숍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저는 교육부 학습자료부서 및 필리핀 사범대학교 과학 GCED 모듈의 pool 작성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통해 투나산 초등학교는 광주 교육대학원 부설초등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파트너십을 맺고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수업 및 국제 교류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국경 간 문화 잇기(한국 수업에서 필리핀 수업까지) 프로그램의 목표를 실현하며 파트너 학교의 Kristine Joan Barredo 선생님과 염수경 선생님은 다양한 문화 이해를 돕는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켰습니다.

파트너 학교의 학생 참여자 또한 Padlet을 통해 수업 주제에 관한 경험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더욱이, 염 선생님과 Barredo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참여자들은 필리핀과 한국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첫 시간에는 이야기하기를 수줍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녹화본 동영상에서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음식, 즐겨하는 것 등 차이점보다는 비슷한 점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국가의 연결된 교실을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며 SDG 및 GCED 통합에 관한 청소년 옹호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제가 배운 것을 다시 돌려주며 다른 이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저와 같은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 갈고 닦아 더욱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Maraming Salamat at Mabuhay! (정말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세계시민교육을 향한 모험을 계속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



필리핀

Noel V. Sadinás

한 나라의 사람들, 문화, 교육 방식, 그리고 그 지역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현지에 직접 가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학습이란 적극적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타인과 교육 제도, 그리고 그 지역 자체를 존중해야 하는 공동체에 속하고 어울리는 데서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경남 양산시의 서창초등학교에서 한국-필리핀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이후,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향한 모험을 계속해야 할 이유 여섯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해 한국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다른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의 귀감이라는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3달 동안 저와 제 문화, 그리고 필리핀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받아준 선생님들과 학생들 덕분에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한국에서 학습한 것을 적용하여 제 학생 및 동료 교사들 앞에서 제가 배운 바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원주민(indigenous people) 마을을 학교 내에 설치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그룹/부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글로벌 정체성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원주민 마을은 다양한 부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차별을 최소화하는 노력의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다른 이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움 아직도 김구민 선생님과 공동 과학 실습 수업을 한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김구민 선생님은 한국 선조들이 '유기농 살충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공개 수업에 제가 사용할 만한 한국 원재료를 구하기 위해 수소문한 결과 저희는 살충제를 만들어냈고, 후추(pepper), 마늘(garlic), 벚꽃 잎(cherry blossom leaf)을 합쳐 'PEGACHE'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의 성분 중 살충제로 쓸 수 있는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야외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실습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기농 농사' 긍정적인 효과, 즉 '지속 가능성 목표 13- 기후 행동'에 해당하는 건강, 웰빙, 환경 보존 및 보호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시민교육 교사가 된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지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인간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공동 대응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교육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글로벌 교사로서의 개인적 및 전문적 측면에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제 장단점을 재정의하여 능력 및 잠재력을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발판 삼아 저는 평화, 인권, 사회적 정의, 평등,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분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글로벌화 교육 측면에 있어 한국이 질 높은 교육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방식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위 '교육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의 교육 수준을 지향하는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교육 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한 한국 교육부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과 같은 교육 제도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변화 저는 2019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이후 시민과 교사로서 더 나은 자세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학생의 어려움을 깨닫고 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을 넓혀 다른 나라의 유사 상황 또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배웠습니다. 지역적인 영향이 세계적인 영향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행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저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꿈을 품었습니다. 막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단순한 방법을 통해 간단하면서도 긍정적인 글로벌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꿈을 가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19년 '적용' (친환경 관행 및 지역적 아이디어의 적용- 우리 자연을 가까이서 돌보기 위한 집합적인 행동) 프로젝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내 문화 마을을 설립하여 SDG 4- 질 높은 교육, SDG 3- 건강 및 웰빙, SDG 13- 기후 행동, SDG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세계시민교육에서 유래한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는 다문화 개념 포함) 아우르는 지속 가능성 개발 목표의 실험실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영감을 받은 또 다른 프로젝트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할 때였습니다. 저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계층(L2) 혹은 자퇴 위기 학생(SARO), 특히 저희 바랑가이 지역에서 인터넷이 안 될 정도로 외진 지역에 사는 학생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도움이 손길을 내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언어로 '프로젝트 카루바(KARRUBA)'라고 지었습니다. 카루바는 일로카노족 언어로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의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및 필리핀 교육부 직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카루바 프로젝트의 목표는 열악하고 방치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준교사 이웃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준교사 30명을 찾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퇴 위기 학생(SARO)의 문제를 우리 학교에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카루바 프로젝트는 준교사와 학생이 사용할 교재 및 학습 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계시민 교육과 및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사랑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기 전 저는 딱딱한 교실 속에서 제 임무를 다하는 것에 만족하고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6년 간의 교사 생활 동안 매일 그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2019년의 저는 필리핀의 외진 산간지에 사는 꿈만 많은 교사였고,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제가 선발되리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심오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프로그램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 신경 쓰는지 목격했습니다.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존경스러울 정도의 교실 내 '인성교육', 교외 활동 중 학생들을 위한 보살핌, 학생의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 그리고 특수 학생을 위한 최적의 배려 모두 생생하게 제 마음 속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통합 수업은 분명하고도 훌륭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라는 여정을 통해 저는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정이 넘치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갖춘 능력을 활용하여 필리핀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 관련된 학습의 기회를 계속 찾아 나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분야와 목표의 달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 바로 그 기회를 찾아 나갔습니다. 교실 안에서만 하는 활동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제 비전을 변화시켜 프로젝트 및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꿈을 실현했습니다. 바로 저 멀리 외딴 산 속에 있으며, 도심과 비교했을 때 교육 기회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위 여섯 가지 요소가 세계시민교육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음에 스며든 음악(글로벌 교사의 이야기)

필리핀



Allan Jason P. Sarmiento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민교육이 강화되고 모든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 지침서가 되어줄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청소년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인식하는 학습자가 되고 세상을 불안하게 휘젓는 리듬이 평화로운 멜로디로 바뀌도록 교육 방식을 전환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청소년들을 전인적으로 교육시킬 때입니다. 이 세상이 위대하고 강력한 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불평등, 빈곤, 부패, 인권 침해로 생긴 문제점에 대응합니다. 모든 연령의 학습자가 더욱 평화적이고 관용적이며 포용적, 안정적인 글로벌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며, 학습자가 책임감있는 세계시민의 가치와 행동을 배우는 평화 및 인권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유네스코의 전략적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당연한 전례없는 보건 위기와 더불어 법치주의에 반하는 수많은 문제가 현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에 속한 시민으로서 서로 이어져 있다고 느끼며, 평화와 함께 하는 더 나은 삶, 웰빙, 번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동의 인류에 속해 있다고도 느낍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보며 저 또한 숭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속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교류를 실제로 체험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선한 영향과 매력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양국 간 문화적, 상호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유네스코 아시아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과 같았습니다.

한국 중학교에서의 3개월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국 고유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교육 능력과 기법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교사로서 열정을 찾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대사와 같은 자세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모든 한국인 교사 분들은 정직한 태도와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셨고, 저는 이 모습을 잘 따르고 본받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적 이해, 관용, 그리고 국제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한국 학생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며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민이며, 그들의 손에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로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 저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세계 시민의 자세가 굳게 자리 잡혔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학생들은 각자가 세계 시민임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더 평화롭고,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필리핀 간 교사 교류 프로그램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가슴 속에 있던 열정의 불씨를 살려 글로벌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교내 언론을 통해 세계 시민 교육을 이루는 OPLAN JOURNO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의식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쓰기 및 읽기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내 언론은 지역적, 세계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발달시키고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을 가진 문제를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다른 필리핀 선생님들과 계속 논의하며 세계시민교육의 전도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우리 세상의 미래를 책임지고 후대에 희망을 품어다 줄 학생들을 위해 교실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에 대한 토론 수업을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식량, 교육, 주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불평등, 학대 및 차별에 희생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인류를 위해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군대와도 같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겨 나가야 할 싸움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구해야 할 생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글로벌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면 마크 트웨인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태어난 날과 그 의미를 파악한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바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학생들이 이 세상을 가꿔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 윤리, 그리고 도덕을 지켜야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킬 수 있으며, 세계시민으로서 바치는 헌신만이 이 세상 속에서 관용과 사랑을 지켜낸다는 의식 말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 세상의 증오와 무례함이 내는 소음을 가라앉히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사랑을 이어나가기

필리핀

Elizabeth Catibog

작년 불어온 팬데믹은 그 누구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렸고, 우리 모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종말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렸고 '적자생존'이 주제인 영화 속에 있는 듯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으며,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분노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쳤습니다.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집중하며 맑은 정신과 생산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기술은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큰 힘 중 하나였으며, 기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좋은 소식을 서로와 나누고 같이 힘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육 제도 측면에서도 기술을 통해 수준 높은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덕분에 직장 업무를

처리하고 우리의 감정을 대하는 것이 쉬워진 것입니다.

한 번 흔들렸던 교육 체계도 이제 자리를 조금씩 찾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들은 한 걸음씩 나아가며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정보를 계속 전달하며 수업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한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는 세계 및 사회 수준의 규범을 수용하여 교육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뒤쳐지는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수용, 숙달, 적응(Adopt, Adept, Adapt)을 의미하는 3A 과정은 교육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현실적, 실용적이며 접근성 높은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가 교육 영역에서 끼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국제 파트너십을 또한 공감, 도움, 정보를 다른 나라에 이어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채택하는 중입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지지 활동 캠페인이 열렸으며, 기부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의사소통 또한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다른 이에게 달기 위한 방법이 됐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번 유네스코 아시아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주관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첫 온라인 교사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한국의 사업 대상국과 교사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2021년 한국-필리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고 학교 간 교육 관행과 문화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레나토 로페즈 초등학교(RLES)는 대한민국 용인시의 송곡초등학교와 파트너가 되어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인 루손 섬을 대표할 영광을 얻었습니다.

RLES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17년 한국-필리핀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중심 인력으로 2021년 연구회의 일원인 4명의 교사와 함께했습니다. 송곡초등학교는 유정남 선생님이



유일한 대표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을 방문하여 저희의 교육 기량을 선보이고 필리핀 문화를 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던 면대면 교류 형식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시작이 모호했습니다. 올해 저희는 온라인으로 교사 교류를 진행했고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앱을 활용하여 한국의 파트너 학교와 접촉했습니다.

학습 목표를 신중하게 전달하고 학습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네티켓, 교육 방식의 차이, 학습자의 영어 능력, 그리고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전달 방식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많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수업의 전략을 짜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수, 배우, 작곡가, 이야기꾼으로 변신하여 학습자들을 위해 재미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수업을 짰습니다. 직접 만든 영상과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주로 진행했지만, 저희 실제 모습을 수업에서 보이는 게 역시 학생들에게 최고의 학습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디지털 방식으로 최대한 상호작용하고 열정과 성의를 다했기 때문에 수업은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산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으로부터 저희가 수업을 켤 때마다 신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J씨라고 부르던 파트너 선생님도 최고였습니다. 그녀는 수업 기획 과정에 흥미를 보이고, 모든 필요 활동과 수업 내용이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직접적이든, 디지털 방식이든 상관없이 의사소통이 모든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두

국가 간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리핀과 한국 모두에 있는 학습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을 받고 이해하게 한다는 공통적인 목표 아래 서로 달랐던 언어가 하나로 모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다름 아닌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이들, 교육,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 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한국 학교와 최고의 교육 교류를 진행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교육 능력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슴 속에 숨겨진 힘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힘은 원천은 다문화감수성과 세계를 이해하는 힘이 적성보다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책임, 인간성, 그리고 겸손을, 또 피부색, 인종, 성, 가치관을 초월한 사랑과 친절함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져 프로그램 이후에도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목표를 달성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손에 손 잡고 하나가 될 때, 서로에게서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을 때,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소통할 때 우리는 살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1년 한국-필리핀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우리의 여정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훌륭한 분들과 작별해야 했기 때문에 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고, 나중에 떠올릴 때마다 힘이 날 정도로 멋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기회가 찾아올 때 절대 놓치지 않기로 저희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을 지지하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나눌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곧 끝나지는 않아도 이번 한국-필리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류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두 국가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뿐더러, 인력 개발의 가능성을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참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기관과 공동체에 저희가 배운 바를 나누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돕고, 전 세계의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로 테레사 수녀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해 나가는 것은 모두가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쌓은 교육 경험

필리핀



Regine P. Lagrimas



저는 교육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교사 생활 또한 포기할 각오를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교육 분야의 지루한 업무에서 탈피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같은 세대의 여성처럼, 저는 권리를 보장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저만의 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와중에 지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가 왜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던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만족감은 얼마나 더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나눠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 나만의 시간, 능력, 심지어 열정을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 초청장은 이러한 때에 있던 저에게 뜻밖의 기회였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저는 새로운 목표와 보다 긍정적인 목적이 생겼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적을 얻게 된 경험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더 나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여성이 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열정과 꿈을 품는 여성 말입니다. 어떻게 단순한 교류 프로그램 하나로 그렇게 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수업과 스케줄의 교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받는 경험이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 국제적인 우정의 형성, 그리고 서로의 가치관을 통한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이 더욱 큰 변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넓으며 사람들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은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모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앞에 직면해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멈추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임무가 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중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타인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저희가 가진 것을 되돌려줄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희 지역사회는 그리 크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많은 아이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 놓고 있다면 아이들은 세계의 빈곤 계층 중 일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해결해야 할 일로 넘쳐납니다. 도움의 손길은 아무리 내밀어도 부족하며, 이는 저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자기만을 위한 교육을 버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계획을 짜며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저절로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제가 벗어나려고 했던 모습에서 180도 전환을 한 것입니다. 모두 아이들의 인생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말입니다.



이 열망은 계속 커졌습니다. 저희는 지역 사회의 주요 인사에게 빈곤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무지에서 벗어나고 인생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쓰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지식을 얻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읽고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문맹이 야기하는 악영향(어린 나이에의 임신, 마약 중독 등을 비롯한 나쁜 영향 등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기도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만약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찾아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열정적이고 의지 넘치는 선생님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예정된 장소에 품질을 검증받은 교재를 들고 왔습니다. 마침내 지역 정부 기관의 도움으로 저희는 Sugbo 프로젝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Sugbo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드러나는 글로벌 이슈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각 아동의 삶을 천천히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3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질 높은 교육, 제로 기아 상태, 그리고 건강 및 웰빙이며 각각의 목표별로 하위 프로젝트를 설정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적 개시를 완료하고 Tudlo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udlo는 파악된 6~9세 빈곤 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을 공유 및 제공하는 하위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읽기 교육을 받을 기회나 적절한 교재를 받지 못해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읽을 준비가 된 학습자들을 길러내고자 합니다. 'Tudlo'라는 단어는 세부어로 '가르치다,' '가리키다,' '안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든 뜻은 아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열정을 담아냅니다. 저희의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 3개월의 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배운 것을 나누고, 놀라웠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감사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서서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며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으로 저는 감사한 선물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새로운 가족, 그것도 다문화 가족을 얻었습니다.



제가 얻은 모든 것 중에서도 교사의 핵심 임무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점에 제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타인을 위한 여성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더 큰 세상의 일부가 되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행동의 의미를 모두가 목격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최고의 자리에 혼자 올라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Honey Riza V. Yu Vega

모두의 뜻을 모으려면 각자가 가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저희 필리핀 비사야 팀은 한국 선생님 및 학생들과 함께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큰 존재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게 인생에서 제일 뼈 아픈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필리핀 교육부에게서 부여 받은 과제인 2021년 시범 온라인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개최식 이후 저희 비사야 팀과 배치학교인 신천초등학교는 첫 온라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를 하고 프로그램 전체 일정을 짤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협력 관계에 놓인 두 학교는 지속적으로 이메일 및 구글 Classroom 공지 기능으로 소통했습니다. 한편 구글 드라이브에 수업 일정, 학생 명단, 수업 녹화 영상 및 기타 영상, 사진, 교육용 자료, 학생 결과물, 수업 참관 보고서, 학생 일기 등과 같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학습 방식에 있어 두 나라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주제를 학생들에게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저는 고작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재활용을 주제로 한 높은 학습 수준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서 똑같은 수업을 진행했다면 일주일의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인력복지위원회에서 체험한 수업에서는 몇 분 안에 끝났습니다. 또한 모든 교재가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주로 흥미로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하는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었으며, 선생님들은 업무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끝내는데 급급한 필리핀 현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협력 학교와 같이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도 저희는 학생들을 몰아붙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려고만 합니다. 저는 필리핀 선생님들이 수업을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기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아이들이고, 즐겁게 배울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접하며 제가 느꼈던 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시기적절함'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케줄, 계획, 순서를 항상 꼼꼼히 봅니다. 저는 이 점이 제일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제 자문 교실에서 도입하고 싶었지만 아직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승인하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21년 간의 교사 생활 동안 저는 처음으로 지속가능개발의 가치를 수업에서 다루며 강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처럼 다른 과목과 합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 그 자체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6가지 수업 및 주제는 한국 및 필리핀 학생들 모두 지속가능개발 목록에 있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세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두 나라의 학생 모두 함께 지속가능개발 가치를 인식하고 그 목표를 증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소소한 방식으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학생들은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요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업을 계획, 진행, 평가하며 저는 점점 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리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제 직업을 활용하여 열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교사들은 교육, 기아, 보건, 빈곤, 성 불평등,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촉매제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동료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알림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배운 것을 남과 나누려면 저의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이해관계자들과 연락하여 지속가능개발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저와 제 팀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바를 유지, 도입 및 확장하겠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Tudlo 프로젝트”라는 지역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6~9세 아이들의 읽기 튜토리얼 공동체입니다. 지역 정부 교육위원회의 도움으로 매주 금요일 학교 밖에서 튜토리얼을 9월까지 진행할 수 있었고 학생들을 위해 매 수업 시간마다 물품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와 연락하여 ‘생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 훈련을 위한 컴퓨터 수업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방관, 경찰, 지역 기관 내 가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여성 인권 향상에 대한 연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튜토리얼 수업 중 아이들에게 빵을 배급하기 위해 제과점 점주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웰빙 프로그램으로 치료 시설을 소유한 이해관계자들과 연락하여 무료 건강 검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봉사 교사를 모집해 댄스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저희 지역 단체장은 관광,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를 지원했고, 지역 정부도 책상을 기부해 온라인 수업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거절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자신을 스스로 거절하는 느낌 또한 들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었고, 교육과정의 우선순위는커녕 학습 목표에도 없었기 때문에 평가절하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투지를 불태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저희는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와 같은 교사들도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만의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론칭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이 저희를 받기며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도중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단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참여의사가 있는 이해관계자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관계자들에게는 3년 단위인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지속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사교류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희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였고,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성취감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더 많은 친구를 얻었고, 특히 배치학교는 저희와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학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변화로 전 세계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프로젝트 - 현실의 조건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도전

태국

Sasithorn Kiewkor



저는 태국 교사이며 3개월 동안 진영 대창초등학교에서 한국-태국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교류를 시작하기 전 저는 한국 선생님들이 태국 파야타이 학교에서 생활하셨던 경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한국 전통 및 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기반하여 수업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매력적인 수업 설계와 더불어 태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덕분에 모든 학생이 수업을

흥미로워 했습니다. 진영 대창초등학교에 도착한 이후 저희 팀은 태국 전통과 문화를 실습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려 했습니다. 이에 한국 학생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잘 참여했고, 수업 내용을 즐기며 학습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매주 15시간의 교습 시간 외에도 한국 선생님들이 각 그룹의 학습과 감독을 공동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언어로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과 특수한 보조가 필요한 학생을 잘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니다. 한편 2017년과 2018년에는 SSAEM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다른 참여자분들의 발표와 포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컨퍼런스를 듣고 난 후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방법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파야타이 학교는 대전 둔산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한국-태국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으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두 학교 모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훌륭한 기회였으며, 저는 그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역량을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개발에 중점을 두고 한국 교육과정을 따라 수업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선생님들은 식물 구성요소 및 기능에 대한 수업을 설계했고 이를 태국 및 한국 문화와 관련 있는 꽃과 식물의 구성요소에 연결했습니다. '와이 쿠루'는 선생님에게 존경을 표하거나 꽃을 드리며 감사를 표시한다는 뜻이며, 아버지의 날이나 어머니의 날에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은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용 영상을 활용한 이후 다음과 같은 학습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 (1) 수업 교류는 새로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참신한 방식이었다.
- (2) 학생들은 식물에 대한 지식과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배웠다.
- (3)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와 조금 달랐다.

이후 저희 학생들도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학습 결과는 교육과정 목표, 즉 학생들의 지식 함양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감사라는 긍정적인 가치 개발에 이바지했습니다. 위와 같은 한국인 선생님들의 가이드라인은 태국 팀이 향후 교육 및 학습 관리 방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태국 선생님들은 계절 변화와 지구온난화를 태국 및 한국의 뜨거운 날씨와 연결했습니다. 그



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지적하고, 두 국가의 학생이 함께 협력하여 '우리의 세상을 위한 21일 동안의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식으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줌(Zoom) 앱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실제 수업 분위기, 학생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과 같은 그룹활동의 진행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수 만리 떨어진 사이에서도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서로를 보며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결과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강화하며, 지구온난화에 맞서기 위한 일상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은 태국과 한국의 국기(무에타이와 태권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수업을 설계하여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고 타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수업은 태국 선생님들이 줌 앱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 선생님들이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업 내용과 실습은 태국 및 한국의 국기, 특히 태권도 기술의 비교로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학습지를 제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 선생님들이 영상에서 시범을 보인 그대로 13개의 태권도 자세 영상을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 분들께 영상을 전송해 검토를 요청하고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결과는 두 국가의 국기, 특히 기본적인 태권도 자세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또한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교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습 동아리 만들기, 추가 수업 진행하기, 다른 과목과 합동 수업 진행하기 등의 활동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수업 계획을 짤 때 더 다양한 활동을 구성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세상을 위한 21일 동안의 프로젝트'는 지속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태국 교사들은 어려운 목표라도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과서와 교실 밖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지만, 실제 세상에서 느끼는 경험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교사 분들 모두가 21일 활동이 학생들의 지속적인 습관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 학생과 상황에 맞게 저희 자신을 조정해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으로서 배워 나가는 일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 등을 넣은 일기를 만드는 활동을 했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활동 진행 중 한국 학생들은 자기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 글만 적었습니다. 한편 태국 학생들의 경우 글을 써서 일기를 올리는 게 번거로워 사진만 찍어 올리기를 선호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채택 온라인 근무 특성상 글쓰기 숙제를 받기가 어려워 패들렛 앱에 학생들의 포스팅을 받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국의 선생님들은 두 국가 학생 모두의 방식에 적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몇몇 요소는 초기에도 바로 그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 두 국가의 국민 모두가 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는 학생들의 포스터 제작 (2) 환경변화를 막는 학생들의 습관과 학생들이 적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사진을 업로드하기 (3) 라인 앱을 사용해서, 아침 일찍 교사들에게 활동을 시작하자고 문자 보내기 (4) 교사들에게 다양한 참여활동을 위한 링크 요청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온라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은 저와 동료 교사들에게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자, 동시에 배움의 폭을 넓힐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 국가 모두의 학습 방식에 맞춰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배움의 기회는 기술을 이용하여 장거리 교육을 실행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또한, 태국과 한국 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근거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 개발의 가치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수업 설계 방식을 배울 기회도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태국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첫 온라인 수업 형태는 8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자신감과 자부심 많은 사업 참가교사로서, 저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선생님과 학생들의 헌신, 노력,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가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Kamonrat Chimphali

저번 학기에 제 학생들은 생태학을 배웠습니다. 수업은 '지속 가능한 인간' 채널의 '늑대는 어떻게 강을 바꿀까?'라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늑대가 강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생물 간의 상호연관성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지구의 꽃 한 송이를 뽑으면, 그것은 저 멀리의 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라는 나비효과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6칸 만화로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학생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의 생물 종이 생태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넘쳐납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제 학생들이 꼭 이해하길 바랐던 핵심은, 우리 사회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없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수업에서는 교실과 교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둘러보고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플라스틱 컵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학교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컵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은 무엇일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플라스틱 컵의 밑부분을 먹이 사슬로 만들어 수업에서 학습 도구로 사용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서로 다른

과목(과학과 영어)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공동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영어 소통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투표 결과 직접 채소를 심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주로 먹는 채소를 심으며 '자급자족을 위한 흙 속의 보물'이라는 프로젝트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컵라면을 즐겨 먹는다면 어떤 채소가 컵라면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그 채소를 심을 공간을 설계하고, 동네에서 어떻게 그 채소의 씨앗을 구할 것이며, 채소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농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중 대다수가 채소를 심어본 것이 아주 오래 전이라, 아이들이 채소를 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채소 심기로 마음을 달래고 또 본인이 먹을 음식을 스스로 기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기 전 수업내용을 맥락과 연결하는 것보다 과학 내용 전달 자체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식물에 대해 배울 때, 학생들은 그 구조에 대한 이해는 했지만 식물에게 아무런 감정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겐 정작 식물을 기르고 보살필 시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와 학생들은 수업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식물을 보호하고 식물이 귀중한 천연 자원이라는 가치를 몸소 배웠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기반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업 내용을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하고, 학생들이 시험 성적에 연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식을 더 좋은 삶과 세상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선생님들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실제 세상의 맥락을 수업 계획에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식물 심기 활동은 학생들이 스크린을 쳐다보는 방식보다 훨씬 즐겁고 편안하게까지 느껴지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식사 시간에 가족과 함께 키운 채소를 먹어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반의 활동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지역 사회에서 수업을 설계하는 모범 방안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다른 선생님들이 제 변화를 통해 영감을 얻고,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맞는 수업을 계획하고, 시험보다 학생의 다양한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저는 Khock Nong Na Model의 전체론적 경제 개발에 생물다양성 활용 모델을 활용하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자족 경제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고, 다른 이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이뤄 수업 활동을 재구성하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무엇을 알아야 할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실용적인 능력 발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타인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인격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을 평생학습, 만족, 행복, 안녕, 기회, 그리고 인류에 대한 기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변화를 일궈내는 경험이자 후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적응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협동심과 적응력을 갖춘 교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갖춘다면 학생들은 책임의식을 갖추고 사회를 변화시켜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는 우리 모두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교류 경험, 금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 표현력 향상

태국



Patcharin Kunna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저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낯선 문화를 접하고, 외국 학교에서 근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제도를 갖춘 나라의 교육 체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마련한 영어 표현력 향상 활동을 배치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나눴고, 협력교사인 양 선생님 및 박 선생님의 훌륭한 영어 학습 활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교육과 미래의 협업을 위해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학습 활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제 배치학교 영어 수업의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학년 학생은 1주일에 3시수 영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은 담임교사가 아닌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진행했으며, 이는 해당 선생님이 영어 전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양 선생님, 혹은 캐시라고 불렸으며 영어를 매우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고작 40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업은 화면에 주로 뜨는 교과서와 교재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수용 능력을 기를 기회가 많았지만 말하기, 읽기, 쓰기 시간이 되자 선생님과 화면에 뜬 내용을 따라 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를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토의 이후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의미 있는 맥락과 학생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활동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활동은 개별 반복 연습, 2인 및 팀 단위 활동 등 다양한 상호작용 패턴으로 이루어져 전체 반 활동보다 학생들의 자신감을 기르고, 언어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여 영어 표현력을 기를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는 활동 중 학생들을 가까이서 관리해 즉각적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어 효과적인 피드백 또한 제공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수행한 시범 활동은 '건강한 음식이 제일 좋아!'였고 이는 이후 제가 한국에 머물 동안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해당 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에서 영어 음식 관련 어휘를 배우고 학교 밖에서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쓰기 및 영어 활용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은 음식의 영양 성분을 배우고 자신이 찾은 결과를 영어 소책자로 제출했습니다.

언어 교사로서 모국어와 다른 새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어린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 개개인이 익숙하거나 흥미를 보이는 주제를 선택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음식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저는 영어 교사로서 음식을 언어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료의 어휘, 조리 방법, 특정 재료의 영양 성분 등에 대해 흥미로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 것은 물론 저도 교류 교사로서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음식의 재료로부터 학생들은 영양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재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학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세계 곳곳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책자를 만드는 동안 공동 교사인 캐시와 저는 샘플 소책자를 보여주며 학생들을 보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어떻게 과제에 대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과제를 잘 해결했고 몇몇 학생은 철자법을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학생 중 대다수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수업 과제를 탁월하게 수행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영어 사용과 그림 그리기에 둘 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가까이서 지켜보고 한국어를 써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조차 못 하게 막았다면 과제 수행의 동기부여를 앗아가고 영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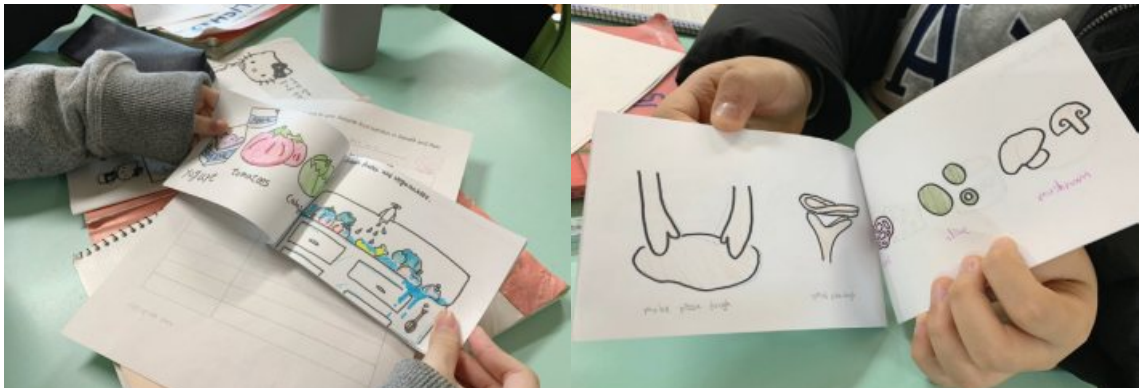
문장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학생을 보며 캐시 선생님은 '잠자는 코끼리'라는 흥미로운 활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활동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할 생각을 하니 신이 났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활동을 하며 너무나도 즐거워했고 짧은 문장을 쓰는 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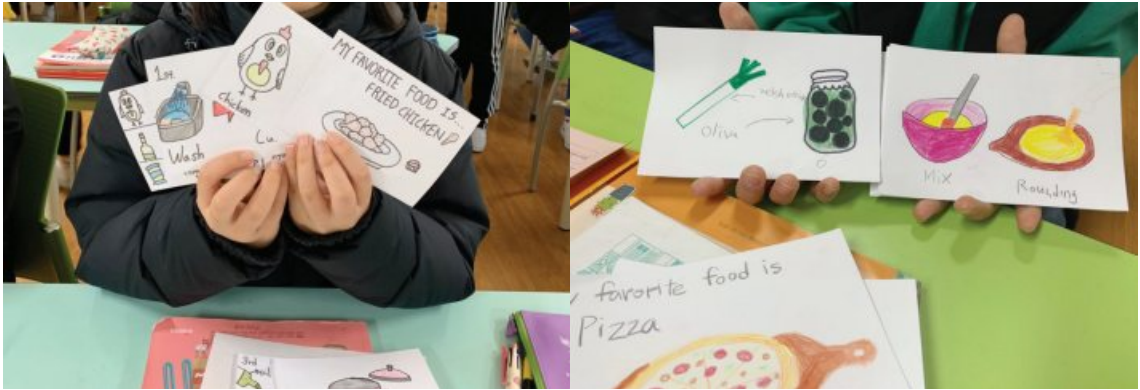
소책자의 마지막 부분은 음식의 영양소와 장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음식의 효과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후 학생들은 소책자에 넣을 정보와 전달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해당 부분을 끝내려면 선생님과의 인터뷰, 책 읽기,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출처를 활용한 정보 찾기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실 밖의 영어 활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대다수의 학생들이 과제를 끝냈지만 나머지는 영양 및 이점 부분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몇몇 학생이 영어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발표 후 구두로 피드백을 줬고 소책자 뒤에 피드백을 따로 써서 프로젝트 속에서 발휘한 영어 능력을 평가해줬습니다. 3개월의 프로그램을 거치며 학생들이 저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더 자연스러워했다는 점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 활동을 하며 영어에 더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더 몰입했으며 다양한 상호작용 패턴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캐시 선생님과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한국어와 그리기 실력 모두를 선보일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금장초등학교의 뛰어난 선생님들과 함께 일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열린 수업에 참가했고 그분들의 가르침에 대한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셨으며 학생들의 이에 몰입했습니다. 학생들은 토론을 계속 했으며 선생님들은 열린 자세로 경청하셨습니다. 수업 진도가 빨랐지만 정확한 것을 보며 선생님들이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금장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최선의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태국 속담 중 '10명이 말해주는 것이 직접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สิบปากว่าไม่เท่าตาเห็น). 남들이 말하는 것은 역시 직접 봐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전 저는 한국의 사람들이나 사회적 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일부 접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한국인 분들과 함께하며 저는 긍정적인 경험만 겪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곳에서 지냈으며,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있는 교육 제도를 경험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은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을 순간이었으며,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기회였습니다.



들어가며 : 베트남에 도착하기까지

김선경

2018년 여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 부푼 기대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했다. 가족들과 떨어져 오롯이 3개월이란 시간을 혼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익숙한 한국의 학교를 떠나 외국인교사로 베트남 학교의 교단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처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공문을 보자마자, 비로소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자신 없었지만, 타문화를 경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기 때문에 주저 없이 지원했던 것 같다. 그리고 파견교사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고, 파견교사 연수를 받고, 베트남에 도착하기까지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 같았다. 다행히 가족들도 염려 말라며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고, 한국의 동료 교사들도 잘 지내다 오라며 아낌없이 격려해 줬다. 덕분에 마치 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내 마음속 제2의 고향이 되어 버린 베트남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게 되었다.

사실 베트남 학교에 파견되기 전까지 여러 나라들을 여행했었지만, 베트남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었고, 파견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나는 이제 베트남 사람처럼 먹고 베트남 사람처럼 생활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다짐했다. 난 비교적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그간 경험했던 여러 나라에서도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먼저 다가갔으며, 현지 음식도 잘 먹고 또 잘 자고 즐겁게 여행했던 기억들이 많다. 역시 베트남에 도착해서도 귀를 요란하게 울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압도되어 '그래, 난 베트남을 배우러 온 사람이야. 3개월간 베트남 사람처럼 살아보자라'며 나 자신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다. 그 결심 때문이었는지 무려 3개월간 삼시세끼 현지식 음식을 먹고 밀크티를 마셨는데도, 그 좋아하는 김치찌개 한 번 생각나지 않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하다. 적어도 난 식생활 문화에 있어서는 3개월간 베트남 현지인이 된 것 같았다.

Part 1 : 친구가 되어 준 베트남 선생님들

호치민 학교에 파견받은 교사는 나를 포함해 모두 10명이었다. 교사들은 두 명이 짝이 되어 같은 학교로 파견되었고, 나와 짝꿍샘(전남에서 오신 초등학교 선생님은 호치민시에서 나름 명문고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BuiThiXuan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다. 학교가 호치민시 1군에 위치해 있어서 출퇴근하기 편리했고, 나의 멘토가 된 선생님(Dung 선생님은)은 우리처럼 APCEIU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파견교사로 왔던 분이셨다. 개학 전 학교에 인사를 간 첫날, 멘토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께서 먼저 말을 걸어 오셨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젊은 선생님들이셨는데, 나중에 안 사실은 내가 자신들의 또래로 보여서 인사를 하셨다는 것이다. 실제 내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친구로 따뜻하게 대해 주신 베트남 선생님들께서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남아있다.

나의 멘토 교사였던 Dung 선생님, 베트남의 교육 제도와 베트남 문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Khuyen



선생님,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신 Thu 선생님, 그리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현지인의 삶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Ahn 선생님, 베트남 전통요리 실습 시간마다 우리를 초대해서 요리를 가르쳐 주신 Ngoc 선생님, 한국어 수업 시간 나의 허가 되어 통역을 완벽하게 구사해 준 Hoa 선생님까지 한분한분이 그림고 보고 싶다. 사실 3년이 지난 지금도 몇몇 선생님들과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비록 SNS 속 사진이지만 BuiThiXuan 고등학교가 어떤 학사 과정 중에 있는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반가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국제 뉴스를 보고 안부를 물어오는 선생님께 감사하고, 5월 15일 ‘한국 스승의 날’이 되면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는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하고 있다. 나 역시 베트남 스승의 날(11월 20일)이 되면, 베트남 선생님들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3년 전 그곳에서 경험했던, 성대하고 인상깊었던 ‘베트남 스승의 날’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Part 2 : 베트남 학생들에게 ‘진달래꽃’을 가르치려 했으나,

BuiThiXuan 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수업 중 잊지 못할 수업이 있다. 문학 교사였던 Ahn 선생님과 ‘한국-베트남의 문학 비교 수업’이 바로 그것이다. 베트남 학교에 근무하면서 비교적 가깝게 지낸 선생님들 중 몇몇 분이 베트남 문학 교사들이었는데, 내가 국어과여서 그러기도 했지만 베트남 선생님들께서는 베트남 문학 수업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너무 궁금했다. 몇 분께 수업 참관을 부탁드렸지만 당일 날 아침 수업 참관을 거부하시는 일도 발생했고, 어렵게 들어간 수업에서는 특별한 수업모형이나 기자재 이용 없이 교과서에만 의존하여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전부였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냈던 Ahn 선생님께 나는 조금 적극적으로 한국-베트남 문학 팀티칭을 제안했다. 각자의 나라 문학 작품 중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택하여 학생들 앞에서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두 작품을 비교하여 토론하며 양국의 작품을 배울 기회를 주자는 등의 내용이었다. 일단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의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다루는 건 무리가 있을 듯 싶어, 베트남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작품을 고르려고 고민했다. 문자 그대로, ‘문학 교류수업’ 인 것이다.

그러던 중 통역선생님께서 대학 때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웠는데 자신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베트남 문학 작품 중에도 ‘사랑과 이별’을 소재로 한 시가 많으니 어떠냐고 제안해 왔다. 김소월은 대한민국 대표 시인이고 ‘사랑과 이별’은 국적을 뛰어넘어 문학에서 소재로 다루는 정서이니 선뜻 그러자고 했다. 그리고 Ahn 선생님께도 베트남 문학 작품 중 비교할 만한 시를 준비하시도록 미리 부탁드렸다. 우리나라 상황이었다면 수업 전 미리 만나서 팀티칭할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고 대략적인 수업 흐름을 상의했을텐데, 학생들에게 뭘 전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한 채 수업일이 다가왔다. 베트남 학교 특성상 주 2회만 출근하시는 Ahn 선생님께 따로 시간을 내 수업 연구를 하자고 부탁드리기도 죄송했고, 날짜가 다가오자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시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받아들일지 점점 자신이 없고 위축되기도 했다. 급기야는 괜히 이런 수업을 제안해서 혼자 무슨 마음고생인가 싶기도 했으나, 통역을 맡은 Hoa 선생님이 ‘진달래꽃’을 안다고 했으니 마음을 좀 편히 먹기로 했다.





수업 당일, 우리 아파트 주변에 마치 진달래꽃처럼 생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걸 발견하고, 경비원 아저씨 눈을 피해 부랴부랴 꽃을 몇 개 따서 출근했다. 드디어 한국·베트남 문학 교류수업 시간, 학생들 앞에서 진달래꽃 시의 내용을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소개했다. 그리고 남녀 두 학생에게 시의 내용으로 짧게 연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국의 진달래꽃과 같이 생긴 그 꽃을 교실 바닥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게 했다. 한국 시 소개가 끝나자, Ahn 선생님도 베트남의 시를 짧게 소개하고 학생들이 두 작품을

비교하며 토론을 하게 했다.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하고 그럴싸해 보였다. 그런데 베트남 학생들은 너도나도 손을 들어, 한국의 여성들은 정말 이렇게 독하나, 남자가 떠나지 말라고 길가에 꽃까지 뿌려 주는데 어떻게 여자가 그냥 떠날 수 있느냐, 한국 드라마에서는 한국 여자들이 착하던데 이 작품 속에서는 왜 그런 거냐며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통역 Hoa 선생님께서 ‘진달래꽃’의 화자를 남성으로 이해하고 여성이 남성을 배신하며 떠나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분명 수업 초반에 김소월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막상 시적 화자가 여성이니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혼선을 빚은 것이다. (한국에서도 ‘시적 화자’를 다룰 때 아이들이 종종 당황한다. 김소월은 남성인데 왜 시 속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로 등장하는지 한국 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달된 시의 내용은 뒤죽박죽이 되고, 순간 당황한 나는 수업하다 말고 Hoa 선생님께 시 내용을 다시 이해시키고, Hoa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 내용을 바로잡는 등 아심하게 준비한 수업이 마무리도 제대로 못한 채 종이 쳐 버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저 웃음이 난다. 소위 양국 간의 문학 교류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와 베트남 문학선생님, 통역선생님까지 셋이서 한 번쯤은 만났어야 했는데 한국어 수업 시간에 내 말을 베트남어로 술술 통역하는 통역선생님을 찰떡같이 믿었던 것이다. 또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의 시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문학 선생님과 여러 번 토의했어야 했는데 베트남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가끔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해오는 베트남 학생들 중 ‘꽃 뿌리기 퍼포먼스’ 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작은 위안을 삼아 본다.

Part 3 : 난 전생에 베트남 사람이었나 보.

베트남에 파견되기 전 나를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성이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안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음식이 전혀 그립지가 않아, 거의 세끼를 쌀국수나 현지식으로 먹었다. 식후에는 베트남 사람처럼 밀크티나 베트남 커피(카페 쓰어다)를 마시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랬더니 나를 좀 흥미하게 바라보는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교사실에서 쌀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는 나에게 ‘김(Kim, 베트남 선생님들은 나를 ‘김’이라고 불렀다)~ Kim 선생님은 전생에 베트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이다.(베트남 사람들은 대다수가 불교인으로 전생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워낙 베트남 음식을 잘 먹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나보다 했는데, ‘왜 그러는 줄 알아요?’ 하고 다시 질문을 던지셨다. 이유인즉슨 내 눈이 한국 사람 눈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 눈을 닮았다는 것이다. 진하게 쌍꺼풀이 있는 눈 말이다. 그 말을 듣고 교사실에 계신 베트남 선생님들을 쪽 둘러보는데 정말 90% 이상 눈에 쌍꺼풀이 있었다. 무려 3개월을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먹고 대화하고 어울려 지냈는데,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이 눈에 쌍꺼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나를 타문화에 대한 관찰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면 눈의 쌍꺼풀부터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생겼다.

Part 4 : 졸업하기 전에 다시 올게



2018년 11월 말 베트남을 떠나며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한 약속이 있다. 너희들이 졸업하기 전에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그런데 2019년 1월 호치민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그대로 환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고, 다시 만나기로 했던 아이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3년 전 만난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다. 지금도 한국 토크쇼와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Puong이 어느 날 메시지를 보내 왔다. '선생님, 저는 이미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 다시 베트남에 오시나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꼭 BTS를 만나 한국어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Ahn도 가끔 메시지를 보낸다. '선생님, 제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 다시 베트남에 오시나요?'

나가며 :

베트남 학교에 근무했던 3개월이란 시간은 마치 내 시들해진 교직 생활에 뿌려진 단비와 같았다. 한국의 청소년들을 사랑하지만 가끔 수업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 게 두려웠고, 또 내가 가르치는 교과 내용이 당장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깊었었다. 그러던 중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베트남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매료되었고, 한국에서 수업 준비하던 것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쏟으며 수업자료를 제작했다. 좀 더 재미있고 쉽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당시 베트남 아이들이 좋아했던 드라마 '도깨비'를 여러 번 돌려보며 수업자료를 찾아 PPT를 만들고, 베트남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K-Pop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노래 가사 속 단어와 문장들을 골라냈다.

3개월간의 꿈같았던 시간들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니 한국은 어느새 2학기 말을 앞두고 있었다. 길고 달콤한 꿈에서 깬 것만 같아 한국 학교로 출근하는 도로에서 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건지 두리번거렸고,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서 베트남 학생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찾으려 했으며, 교무실 선생님들 속에서 혼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방인처럼 낯설어했다. 그리고 다시 3년의 시간이 흘러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의 익숙한 학교 문화 속에서 바쁘게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올 해도 도교육청 소속 문화인권감수성 강사로 도내 초중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 중 꼭 빼놓지 않는 내용은 단연 베트남 파견교사 시절에 경험했던 베트남 학교 이야기다. 아직 모든 문화권을 경험한 것이 아니어서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강의할 때마다 청중과 나 스스로에게 힘주어 말한다.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넓은 마음을 갖고 대하라고. 저들이 우리보다 조금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낯설지라도,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오늘도 또 기대한다.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어 베트남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Tạm biệt VietNam. Hẹn gặp lại.* (잘 있어요 베트남, 다시 만나요.)



안유정

태국, 좋아하세요?



재작년 태국 치앙마이에 혼자 여행을 갔다. 힘들 때 떠났던 여행이라 그랬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햇살을 받으며 걸어 다니기만 했던 그곳이 참 좋았다. 초록 초록 거대한 풀들과 그사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1월, 건기의 태국은 매일매일 내 몸에 행복 호르몬을 뿜어져 나오게 했다.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말은 통하지 않아도 미소로 맞아주는 그들의 친절함이 좋았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여행이 아닌 이곳에서의 삶이 궁금해졌다. 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짧은 휴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날도 아이들을 보내고 수업을 준비하며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인디스쿨에 접속한 날이었다. 그런데 메인 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제목.

「태국어 배우실 분~! 스터디 모집」

태국어~? 여행을 하며 태국어를 안다면 여행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기에 눈길이었다. 나처럼 태국을 좋아하는 선생님인가보다 하고 글을 클릭했다.

글을 클릭하고 보니 의외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글을 쓴 선생님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으로 태국 파견을 갔다 온 선생님이었고, 4개월간의 파견생활 이후에도 계속 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스터디를 모집한다는 글이었다.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나는 궁금한 마음에 당장 댓글을 달았다.

“선생님, 이 사업이 공문으로 오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저 태국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태국 파견 가고 싶어요!”

친절한 답글이 바로 달렸고, 매년 12월쯤 학교로 공문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견을 추천한다는 말씀과 함께 파견에 대한 팁도 주셨다. 신나는 마음에 학교 공문함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지난해 12월에 온 공문을 볼 수 있었다. 4개월 동안 태국에서 살아볼 수 있다고? 이거 완전 나를 위한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태국에서 살아보겠다는 철없는 마음으로 그해 12월 파견을 지원했다.

출국 전 사전연수

운이 좋게도 파견 지원에 합격 결과를 받았고, 1지망으로 쓴 태국에 배치받았다. 룰루랄라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 전 사전연수에 참석했다. 신나는 마음으로만 출국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네스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진행된 2주간의 사전연수는 나를 조금 긴장시켰다. 강의에서 이 사업이 생긴 배경과 목적, 기파견자들의 이야기, 파견 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하여 들으니 한국이 아닌 태국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펼칠 교육 활동을 고민하게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였는데, 강의를 들으며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지금도 많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희망 편지쓰기 활동과 성금 모금 활동. 나는 이 활동을 할 때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가 얼마나 가난한지,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기부를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시혜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다문화 시대에는 더 이상 시혜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발전해 갈 미래를 향한 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새로운 관점에 공감했다.

태국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을 조금씩 그려가기 시작했다. 은연중에 가질 수 있는 시혜적-우월적 태도를 경계하고 동등한 교류국으로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나는 그곳에서 어떤 수업을 할까. 또 돌아온 이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수자로서의 삶

태국 사뭇쁘라칸 지역의 Wat Bangprong School에 근무하게 되었다. 전교생이 300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학교에서 3~6학년 영어를 가르쳤다. 태국학교에서의 생활은 즐거웠다.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돌아가는 교실, 한 반에 40명이 넘기도 하는 뻘뻘한 교실이었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나를 힘내게 했다. 내가 외워간 몇 가지 태국어 말하면 학생들은 까르르 웃었고, 학생들이 간단한 영어로 나에게 말을 걸 때 나도 까르르 웃었다. 수업 시간 뿐 아니라 학교 어디에서 만나던 나에게 환한 미소로 다가오는 학생들의 관심과 사랑이 고마웠다.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 교사일 뿐인데 환영해주시며 먹을 것을 가져다주시기도 하고 함께 여행하며 다양한 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태국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와 사랑 속에서도 문득문득 드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학생들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협력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을 걸거나 교실 뒤에서 교사들끼리 크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이곳의 문화인 건지 무례한 행동인 건지 알 수 없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관계가 틀어질까 혹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 협력 교사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오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참치 뭐.'하고 넘겼다. 매주 한 시간씩 진행되는 교무회의에 거의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땐 한국 학교의 원어민 교사가 떠올랐다. 태국 음식을 좋아하고 교수도 잘 먹는다고 자부하던 나였지만 태국학교 급식은 진짜였다. 쌀밥과 과일을 제외한 모든 반찬과 국에 교수가 듬뿍듬뿍 들어갔다. 태국의 교수는 우리나라의 마늘 같은 것이 아닐까 짐작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마늘 냄새를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태국학교에 근무하면서 내가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소수자로서의 삶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한국학교에서 초등교사로서의 나는 소수자가 아니었다. 초등교사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어른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견을 내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학교 안의 소수자에 대해 깊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태국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로서 생활해보니 소수자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수에 속하지 못하는 소외감이 어떤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었다. 많은 배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이 마음을, 혹 배려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은 얼마나 더 크게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파견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우리 반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파견 전, 부끄럽게도 나는 깊은 고민 없이 다문화 교육을 했다. 다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두기보다 으레하는 교육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견을 갔다 온 이후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외국인으로서 사는 답답함과 때때로 느끼는 불쾌함, 그리고 그것을 소수인 내가 참고 넘기는 것이 편하다고 결론짓게 되는 과정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소수자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방법일까.

파견을 통해 내가 배운 것, 보고 느낀 것, 한국의 학교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돌아와서 다문화 교육을 할 때 내가 바란 것은 학생들 스스로 함께 어울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교사가 '배려해야 해', '차별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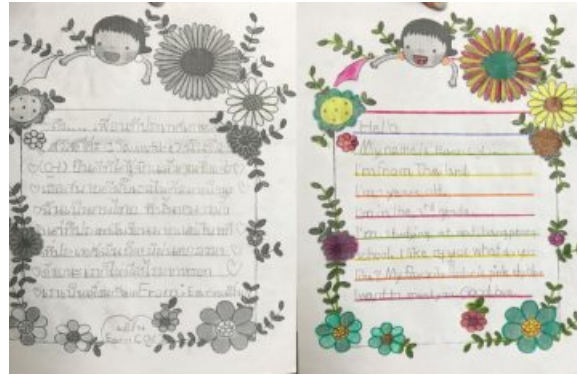
1. 다름을 찾기보다 같음을 찾기

태국학교에서 찍은 태국 학생들의 사진과 영상을 우리 반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외국인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와 다른 점일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른 점을 찾고 신기해했다.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 잠잠해질 즈음 아이들에게 너희와 비슷한 점,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했다. 공통점을 찾으려면 더 자세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유를 마시고 급식을 먹는 모습, 책상에 앉아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모습, 웃는 모습,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노는 모습, 조회 시간에 몰래 장난치는 모습 등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즐거워했다.



2.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서로 연결됨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비록 실제로 만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펜팔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국 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고 마침 태국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가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한 명씩 짝을 지어줬다. 태국 학생들은 나와 함께한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표현으로 편지를 썼다. 뒷장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태국어로 편지를 썼다. 앞뒤로 가득 채운 편지를 그 친구의 사진과 함께 한국 학생들에게 전해주었다. 내 이름이 적힌 태국



친구의 편지를 받은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태국어로 쓰인 편지는 번역 애플리케이션의 사진찍기 기능으로 바꾸어 읽었다. 답장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앞뒤로 적은 편지를 사진과 함께 태국어로 부쳤다. 일주일 후 편지를 받은 태국친구들이 Facebook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한국 학생들도 사진을 보며 느낌을 나누었다.

3. 함께하는 즐거움



태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커다란 작품을 만들었다. 먼저 태국 학생들이 한 사람당 한 장 씩 스크래치 페이퍼에 그림을 그렸다. 그동안 나와 함께하며 알게 된 한국에 관한 것과 한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마음을 담았다. 그 그림들을 모아 붙여 거대한 하트의 반쪽을 완성했다. 그것을 들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 학생들과 하트의 나머지 반쪽을 완성했다. 한국 학생들은 태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마음을 담았다.

서로의 마음이 담긴 작품들을 이어붙여 거대한 하트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을 학교 복도에 전시했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오고 가며 작품을 감상했다. 관심을 보인 학생들이 나에게 와서 질문하기도 하고, 작품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무엇보다 작품을 전시한 우리 반 아이들이 함께 만든 작품을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다.

그림을 잘 그리는 Mai는 한국 친구들에게 귀여운 캐릭터를 그려 보내주었고, 글자를 잘 쓰는 Earn은 프린터로 뽑은 듯한 편지를 써서 한국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분위기를 메이커였던 Max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춤추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한국 친구들을 즐겁게 했고 영어를 잘하는 Tang은 영어로 멋지게 자기소개를 했다.

학생 스스로 통하는 점이 있다고 느끼고 함께 지내는 것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외국인 친구가 아닌 우리 반의 다문화가정 친구를 만났을 때도 같다고 생각한다. '배려해야 하는 대상'을 넘어서서 함께 '동등한 친구'로서 지낼 수 있게 돕는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의 다른 피부색, 생김새에 집중하기보다 그 친구가 가진 다른 특성, 좋은 점을 바라보게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다름을 넘어 함께 어울리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그 즐거움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화합의 하모니, 나를 변화시키는 세계시민교육의 힘!

한국

김 성 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레이시아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류사업(KOMTEP)에 참여한 인천 공향고등학교 국어 교사 김성희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는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온택트 뉴노멀’(Ontact 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부문은 세계적, 경제적 차등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다문화 국가와의 교육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게 되어 감사드리며 이번 온라인 교류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교와 결연을 한 학교는 말레이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KOLEJ VOKASIONAL KENINGAU로 직업교육 전문학교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학제가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계 고등학교로 일찍부터 자신의 꿈과 직업이 확실한 전문가의 길을 꿈꾸는 학생들이입니다. 4년간의 전문 교육을 마치면 자신의 재능을 살린 직업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에 퍼진 한류에 대한 인기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에 대해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활동의 구성과 내용, 둘째, 양국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학생들의 열정, 셋째, 국적을 초월하는 교사로서의 연대감과 개인적 변화입니다. 온라인 수업 교류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양국 학생들의 ‘화합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공동의 주제 아래 상호 문화 이해 수업, 세계 기후 문제 수업, 세계시민의식 평등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로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을 실천해 보기 위한 ‘라면챌린지’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에코 브릭스’ 활동을 함께 실천해 봄으로써 세계화와 현지화의 조화를 체험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업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이 실제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줌(Zoom) 실시간 영상 수업과 실물 활용 수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창제에 담긴 평등사상을 배우고 나면 자신의 한글 이름을 도장에 새겨보는 실제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할 때는 학생들에게 기념 엽서를 배부하여 실제 만져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의 개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라면챌린지 활동에서는 직접 한국의 라면을 보내 학생들이 요리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 젓가락 기념품을 식탁 데코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수업 이론과 학생 경험이 결합된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도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호기심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줌(Zoom) 소그룹 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한국 학생 1인과 말레이시아 학생 5인의 팀 토의 수업, 한국 학생들이 미니 선생님이 되어 참여하는 도장 만들기 수업,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 여행 사진을 곁들여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발표하는 수업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교감을 높여 나갔습니다. 미디어 Z세대답게 재미있는 학생 브이로그도 만들어 한국과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일상도 공유해 나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SNS,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우정을 함께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게 바로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상생의 문화 교류 아닐까요?

둘째, 양국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열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양국 협동 프로젝트로 ‘라면 챌린지’와 ‘에코 브릭스’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학생들 각자 자신의 취향대로 맛있는 라면 조리법을 패들렛(padlet)에 올리고 상대 국가의 라면을 자기 나라 스타일로 다시 끓여보는 활동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치즈라면, 해물라면, 부대찌개라면 등 재밌는 조리법들을 소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학생들도 다양한 말레이시아 라면 조리법을 소개하고 한국 친구들의 라면 조리법을 자기나라 방식으로 풀어 내어 라면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들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각종 평가와 문서화된 시험에 지쳐 생기있는 모습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달랐습니다. 학생들 모두 한마음으로 즐기면서 라면 요리법을 패들렛에 소개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야외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말레이시아 문화를 더욱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라면 재료인 각종 조개를 개울에서 잡는 모습부터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업 후 학생들은 “와! 선생님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진심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 감동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말레이시아에 가보고 싶어요. 이제는 말레이시아가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학생들 마음 속 다문화 국가에 대한 차별의 장벽이 서서히 사라짐을 확인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셋째, 국적을 초월하는 교사로서의 연대감과 개인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사로서 비대면 수업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회의 변화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교사로서 공교육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난 3개월 남짓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말레이시아 선생님들과 함께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회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러한 소통 속에 우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교사로서 연대감을 느끼고 비대면 수업 노하우를 교류해야겠다는 자발적인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후속 활동으로 ‘온택트 시대, 블렌디드 러닝(Korean Blended learning in Ontact era)’을 주제로 한국의 비대면 수업 노하우, 학교 경영 노하우를 나누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각지에서 모인 약 180여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교육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블렌디드 온라인 러닝에 대한 노하우, 감염 예방을 위한 오프라인 학교 경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로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큰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멀리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오늘날의 수업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유형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교사, 학생들과 협력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교육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일부 과목에 국한된 이야기로만 인식했습니다. 한번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문화 발전의 속성처럼 저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이념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인 세계시민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학생들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너그럽고 따뜻한 시선과 함께 걷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같이 해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주관해주신 우리나라 교육부, 말레이시아 교육부, 유네스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파견학교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 이정표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2011년부터 일본과의 학생교류를 해왔었고, 러시아 알콰 교사의 일원으로 교육봉사를 하러 다녀왔기에 교류활동은 교사인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주는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그러던 중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본적은 있었지만, 감정을 두고 파견을 갈 수 없었기에 용기내어 도전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었고 세상은 꿈꿨던 얼어붙어 버렸다. 코로나19의 위력 앞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인적 네트워크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다만 화상으로나마 서로의 온기를 차가운 화면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과 같았다. 그때 다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화상교류였고, 솔직히 말레이시아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꼭 말레이시아를 고집할 필요는 없었고, 어느 나라와도 교류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도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나에게 필리핀의 이름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였고, 그 단어는 이제 학생들에게 열어주어야 할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또한, 나의 경험을 믿고 바쁜 와중에도 힘을 보태준 동료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류 활동의 경험을 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필리핀 선생님들과 첫 화상 회의를 하게 되었다. 우리와 1시간의 시차를 생각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시간을 잡아서 기다렸다. 하지만 만나기로 시간이 지났지만 응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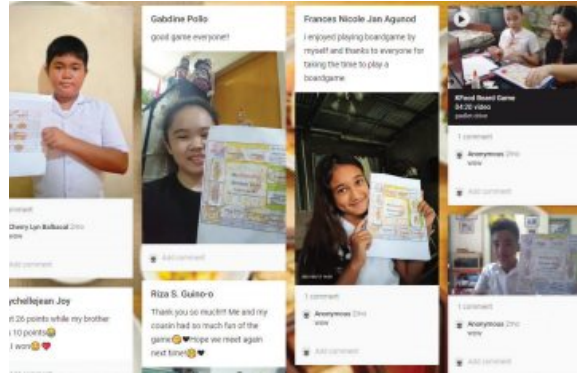
없었다. '첫 만남인데..' 나의 마음이 한없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30분째 덩그러니 까만 배경 안에 남겨진 세 명의 동료를 위해 뭐라도 해야 했다.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어야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다고 말을 하고, 마무리하려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것이 필리핀 선생님과 나의 첫 대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연코 필리핀 선생님들의 마지막 지각이었다. 지금에서야 생각이지만, 우리를 만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준비를 하셨을 선생님들을 그렇게 야박한 얼굴로 맞이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첫 대면이었고, 아직 이런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두 분의 동료를 위해서라도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좀 더 준비되고, 무엇인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해야 그간의 침묵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나 그런 나의 고민은 잠시 후 자연스러운 대화와 온화한 미소 속으로 사라져갔다. 첫 회의에서 우리는 대부분을 정했고 너무도 쉽게 우리가 할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차피 수업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 선택한 편지쓰기와 선물 교류하기, 그리고 현실 여행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가상여행 제안까지, 모든 아이디어들이 회의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도 흔쾌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너무도 공손하게 우리를 대해주는 모습에 되레 잠시라도 의심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필리핀과 한국의 교류는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덕분이었다. 예전의 교류는 대부분이 메일이나 업무 담당자 간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화상 회의라는 도구를 누구나 사용하게 된 상황에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관찰할 수 있었다. 클라우드 공유를 통해 자료를 주고받는 것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었고, 아이들의 수업 결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코로나19가 정말로 미지만,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게 하였다.

우리 팀은 미술교육 콘텐츠를 올리는 교사 유튜브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보드게임 활용법을 연구하신 분이 계셨으므로, 우리 나라의 개성과 교사들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필리핀 측은 전통 춤, 전통 음식, 그리고 세계시민 교육과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프로젝트로 학생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하고, 가상지도의 지점 등록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서로의 여행을 평가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첫 수업을 하기 전까지 교사들 간의 SNS를 통해 들려오는 필리핀의 소식은 기대 이상의 것이었다. 우리가 학교 내의 요소를 활용하여 교류 활동하는 것에 반하여, 필리핀은 정말 그 지역의 모두가 교류활동의 일부가 되었다. 지역사회의 기관장도 학교로 오고, 지역의 산업체 사장님도 학교를 방문했다. 아울러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다. 그들이 축하하는 모습만 보노라면,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고있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다섯 분의 열정적인 필리핀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은 상상 이상이었다. 필리핀 전통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또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학교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하나의 참여의 장이 되어 아주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학교와 학교 간의 교류였지만 실상은 대연 초등학교와 필리핀 파나보 시티 전체와의 교류였다.

필리핀에서 교류하는 학생은 총 20명으로 3개 학급의 75명이 참여하는 인원보다는 적었지만, 상대학교인 리잘초등학교는 총 학생의 수가 본교의 3배인 4천여 명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의 친구만이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각 나라마다 교육의 여건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제한적인 환경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 힘쓰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리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학습지와 라디오 방송 송출 등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며,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므로, 학습지를 학교로 가져오고 들고 오는 것은 학부모들의 몫이라고 했다). 현재의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필리핀에서는 지역과 연계하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게 교류 수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내 마음의 빗장이 하나 벗겨졌다. 교육 여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품고 비판적인 시각을 세우곤 했던 나 자신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하는 지역 공동체 속에서 살아 있는 학교의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는 생각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필리핀 선생님들의 웃음과 여유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의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빗장이 풀어진 것은 첫 번째 빗장이 풀린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였다. 어느 날 저녁 메신저로 날아온 광경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대연초등학교 80명의 이름이 카드로 출력되어 있었고 주말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과 80개의 이름을 망그로브 숲에다가 심는 영상이 날아 온 것이다. 세상에, 지금, 이 순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망그로브 숲에 나의 이름을 단 나무가 자라고 있다니, 너무도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고마움은 곧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다음 날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런 부담이 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지구촌의 감성이 아이들을 일깨워주고, 설레이게 만들었다. 생면 부지의 누군가가 아이들을 위해 나무를 심고 이름을 부여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너무도 행복해 했다. 아쉽게도 우리도 그들처럼 나무를 심고 싶었으나, 노후 시설학교를 재건축 하는 계획이 잡힌 상황에서 우리도 나무를 심기란 어려웠다. 그러던 와중에 선생님들의 지혜로 각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집에다가 나무를 심자고 하였다. 동급의 활동으로 대응해드리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아이들 역시 자신들의 호의를 호의로 표시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누려야 성공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은 나누는 것의 기쁨과 환희임을 깨닫고 있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도 너무나도 큰 감사를 표시하시고는 언젠가는 꼭 필리핀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필리핀으로 꼭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마지막 계기는 정말 우연하게 찾아왔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 배정받은 리셴이라는 원어민 교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캐나다 사람이었지만 부모님들이 필리핀의 이민자라고 하였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는 다바오 시티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하였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여 그녀에게 즉각적으로 교류수업에 참가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너무도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고, 나와 함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였다.

수업 시간 내내 그녀의 눈은 반짝거렸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들의 눈도 반짝거렸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분명 알게 되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열려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그 기회는 언제나 공평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녀 역시 그녀 부모의 영향으로 방학 때마다 필리핀을 방문하고는 했지만, 진짜 자신의 혈육들을 만나고 가르칠 기회를 한국에서 가진다는 것은 너무도 운명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필리핀이 갑자기 안전한 도시가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여유로운 웃음과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있는 필리핀, 우리의 이름을 달고 지금도 자라고 있을 맹글로브 숲, 자신의 뿌리가 있는 나라를 이국의 땅에서 다시 만난 운명의 목격,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다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필리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연과의 관계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 역시, 필리핀을 단순히 관광의 대상이 아닌 먼 미래를 함께 걸어가야 할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게 해주었다. 아이들의 생각들을 마지막 영상으로 정리하며, 그동안 가졌던 아이들의 설레임과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들 하나 같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어서 저 멀리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필리핀이 얼마나 따뜻함으로 가득한 곳인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사실 아이들이 단순한 흥미 정도로 교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의 인터뷰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러한 기우는 정말 쓸데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코로나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제한적인 상황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함께 심은 맹글로브 나무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싹트기 시작한 세계시민들은 훗날 우리가 심은 그 나무처럼 든든한 지구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나는 희망한다. 필리핀 다바오 시티에서 그들을 만나고, 부산의 바닷가에서 그들과 웃는 그 날이 오기를.

국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다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
우수사례 모음집

